



www.maggun.com

2019.04 vol. 97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 가깝고도 먼 섬, 유부도 · 사진으로 보는 봄 소식 · 신진수산 **나용일** 대표

· 7년째 교통봉사, **김재만** 씨 · 일상예술 '띄움' **이주연** 대표 · 군산의 새로운 가치발견, '상상공간'

· 영화이야기 · 지휘자 **이하경** · 군산 콩당보리축제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GO TO THE
KUNSAN

KSNU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국립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궁금하지 않나?



제3회 캠퍼스 사진 공모전 대상작
<국립 군산대학교, 궁금하지 않나?>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전국 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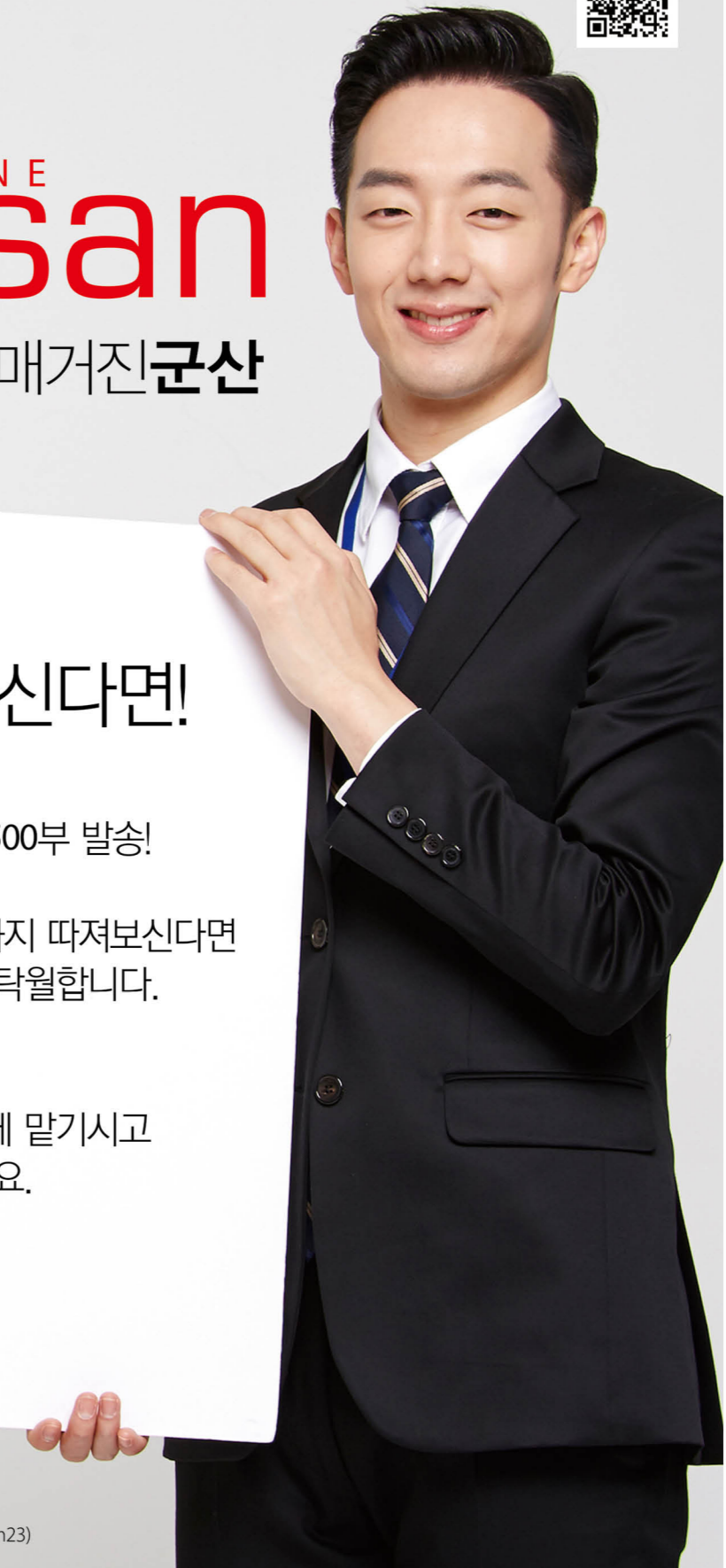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063-445-1856 f.063-911-1856 wh.icm23 (icm23)

유기농공부

바른 공부, 건강한 습관

아소비

5~9세

전문 공부방

아소비

아소비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치 / 초등 1.2학년 전문 공부방 입니다.

아소비의 15년 교육 노하우가 담긴 특화된 교육 콘텐츠는
오직 아소비공부방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소비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인정하는 유치 / 초등 공부방의
리딩컴퍼니입니다.

아소비 수송점

전북 군산시 수송로 286
미장빌딩 403호 아소비학원

원장_한경진

☎ 010-4024-8285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목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100년을 이어 온 시대정신

3.1만세운동 및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선조들의 뜨거웠던 독립의지를 재천명하고 100년 전 이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그중에서도 KBS의 쉽게 풀어 쓴 '독립선언서 국민낭독' 프로그램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확산케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우리 군산은 1919년 3월5일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발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새롭고 지난 3월1일 구시청 광장에서 독립선언서를 시민들 33명이 나누어서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념행사를 가진바 있는데 새롭게 풀어 쓴 독립선언문의 요지를 실어본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중략)

- 세 가지 약속 -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뚜렷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년 삼월 초하루(1919년 3월1일)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911-1856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험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채영인	박지은	서민지	조승표	임유진
김선영	문경필	고동석	안아라	안태훈
백지현	박미라	박영미	김선영	한성균



발행인_ 채명룡

발행인의 편지

호들갑

GM군산공장의 새 주인이 나타났다고 각종 언론에서 난리이다. 보도 시간을 정해주는 엠바고까지 요청하면서 한 목소리로 MS그룹컨소시엄의 군산공장 인수를 떠들었다.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추가적인 대안 모색은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될 지경이다. 바라보는 필자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GM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고용 절벽에 몰린 근로자 가족은 물론 공단과 함께 삶을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다행이다.

그런데 며칠을 굶었다고 설익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계약자와 GM의 되어가는 형편을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만의 하나 불안스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MS그룹 컨소시엄의 지위는 '우선협대상장자'라는 것이다. 공장 매입가격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자칫 헛물만 들이킨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둘째는 이 컨소시엄이 내세우는 생산 방식에 우린 주목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산공장 주변의 160여개 이상 되는 부품업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셋째는 가칭 군산형 일자리 비슷한 기업 위주의 논리에 너무 몰입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

이다. 그렇잖아도 광주형 일자리는 일반적인 기업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역대 가까운 임금을 받는 이른바 '황제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의 공장을 인수하여 돌린다는 명분으로 모든 걸 감수하라고 한다면 무리 아닐까.

할 말은 많지만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기에 되어가는 모양을 살피면서 하려고 한다. 그렇더라도 중소부품업체 컨소시엄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봄이 멀다.

이 컨소시엄이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GM의 몸값 올리기 작전에 속는 건 아닌지, 군산공장을 이용하여 새로운 먹튀 작전을 짜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MS그룹 컨소시엄이 초기에 2,000억 이상을 투자하여 군산공장을 인수하고, 2021년까지 연산 5만대, 2015년부터 연간 15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이 맞는 건지도 함께 말이다.

봄소식과 함께 GM군산공장 새 주인 찾았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이지만 마냥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서 하는 말이다.

일사천리로 잘될 때일지라도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하며, 서푼 정도는 경계의 뒤편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법이다.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고우당커피숍 (월명동) 063-443-1042
- 군산CC (옥서면) 063-472-335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063-443-8283
-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063-462-2241
- 기업은행 (나운동) 063-467-6752
- 던킨도너츠 (중앙로) 063-443-7887
- 동군산병원 (경장동) 063-440-0300
- 미다원 (영화동) 063-462-2132
- 산타로사 (은파유원지) 063-462-9062
- 신포우리만두 (장미동) 063-445-0389
- 아리울 웨딩 (조촌동) 063-453-3200
- 오죽일식 (나운동) 063-464-5625
- 좋은사람좋은치과 (수송동) 063-466-2875
- 파라디소페르두또 (은파유원지) 063-471-8525
- 우리문고 (중앙로) 063-445-0031
- 한길문고 (나운동) 063-463-3109
- 호남공인중개사 (중앙로) 063-445-1212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 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택배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농협 302-9676-8134-21
예금주_ 채명룡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Vol. 97 | 2019.04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허종진	hjj1488@hanmail.net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신재순	speedal@jbedu.kr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윤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사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2

우리 예쁜
비비를 위하여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아이의 마음으로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엄마 아빠 놀이

송현섭

우리는 놀이터 구석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막대기로 줄을 그어 집을 짓고 예쁜 창문도 만들었어요.
금세 아이를 낳아, “비비” “우리 예쁜 비비”라고 불렀어요.

모래로 밥 짓고 뭍에 좋은 이끼와 풀 반찬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벌써 다섯 번이나 회사에 다녀왔고 다섯 번 식사를 했어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말했을 뿐인데 바가지를 굶는다며 짜증 났어요.
다시 밥을 하고, 우리는 여섯 번째 식사를 했지만 또 배가 고팠어요.

비비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배고프다며 집으로 가 버렸어요.
나는 찢어진 꽃처럼 화가 나서 두 발로 신혼집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아무리 귀여운 녀석이 와도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거예요.

- <착한 마녀의 일기> (문학동네 2018)

동시집 <착한 마녀의 일기>(문학동네 2018)는 제6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작가는 우리고장 옥구 출신의 송현섭 시인이지요. 그 중 재미있게 읽은 <엄마 아빠 놀이>를 소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한 때를 눈앞에서 보는 듯 읽을수록 웃음은 나오는데, 조금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득해지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른인 우리의 삶이 이 아이들의 소꿉놀이처럼 지나버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부모의 모습을 흉내내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게 회사가고, 밥 차리고, 술 마시고, 싸우고, 살지 말자 그러다 나이 들어 버린 건 아닌지 하고요.

잠시,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살짝 들어가 다른 역할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찻잔을 두고 오늘 하루 지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쁜 비비에게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장면이면 좋겠어요. 가끔 아내와 남편이 싸우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꿈에 대해 묻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어떤 꿈을 꾸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거창한 걸 기대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마주 앉아 서로의 꿈, 가족의 꿈에 대해 묻고, 얘기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면 아이들 대화도 저절로 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마저 여과없이 비추는 거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부디, 오늘도 평안하시길.

신재순
시인/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공직 40년을 넘어
인생 2막을 간다

종교인의 삶, 봉사의 삶을 향하여

군산성광교회 **고재찬** 장로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전북개발공사 임직원들과



전북개발공사 노사 한마음 대회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는 업무

자그만치 43년 9개월이라고 한다.

까지머리 총각으로 시작한 공직자의 길. 그 길에는 고재찬이라는 이름을 걸고 헤쳐왔던 외롭고 험한 봉사의 세월이 녹아 있다. 누군가에게는 한 평생이 될 기간이지만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청년 가정에겐 한 길을 가야만 하는 숙명의 시간이었다.

3년 전인 2015년 말, 그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가장 큰 영예인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을 마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 이전에 군산시 공무원으로 27년 임실군 공무원으로 4년을 봉직하였다.

국가와 지역을 위한 그의 공직자의 길이 이렇게 묵고 묵어 찬란히 빛나는 고목으로 남았다. 오늘, 그는 어려움에 쌓였던 전북개발공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퇴임했다. 군산과 전북도의 살아 있는 자산이다.

12살 초등 6학년, 5남매의 가장이 되다

초등 6학년 때인 12살 때, 그의 막내 동생 후남이가 3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토목건설업을 했던 아버지

였으나 군대에서 입은 화상으로 인한 병마를 이길 수 없었다. 어머니는 서른셋에 홀로 되었고, 그 때부터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장사는 다하시면서 오직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으셨던 그리운 어머니시다.

어려서 가장이 된 소년 고재찬, 5남매의 외아들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 동안의 책임과 의무의 크기는 얼마였을까.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야만 했던 그는 대학은 꿈도 꺾보지 못했고, 전주 공고에 들어갔다. 운명처럼 토목과에 배정되었다. 살던 임실에서 통학과 자취를 번갈아 했다.

“고 3때 실습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경계측량도 하였고, 지금의 도로관리사업소와 농어촌공사 등에서 측량과 설계 일을 도우면서 세상 물정을 익혔지요. 만 18세가 넘어선 1975년 3월 16일 시험에 합격해서 그 해 5월 1일자로 임실군 청웅면으로 발령받아 공직을 시작했지요.”

공직자의 길로 뛰어 들었을 때 그는 약관이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는 늘 자신에게 엄격했고 타인에겐 관대했다. 그런 리더십이 임실에서 군산으로 진출 와서 군산사람으로 자리 잡았고, 군산에서 손가락에 꼽는 성광교회의 최연소 장로로 임직 받았다.

또한 군산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신화를 쌓았으며, 전북도로 진출 가서 '군산에서 도에 진출 와서 승진한 사례가 없었다.'는 앞서의 예를 이겨내고 국장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읜 5남매 형제의 맏이로, 두 아들의 아버지자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돌아왔다.

군산이 배출한 긍정마인드의 '형님 리더십'

군산이 배출한 긍정마인드의 공직자, 외유내강의 살아있는 교본으로 불리는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그는 어려움 속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군산이라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써주어야 한다.

“제가 스물셋 때 군산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본격지도 군산시 선양동 223번지로 옮겼거든요. 전주로 진출 갔을 때도 가깝던 친구들이 전주로 이사 오라고 했지만 저는 군산이 좋아요. 무려 10여년동안 도청 과장을 거쳐 기술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건설교통국장을 지냈지만 지금까지 군산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처럼 이제는 뺏속까지 군산사람이다. 능력과 경륜을 가진 그의 이름은 '군산의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는 공직자로서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업무에 쫓기는 시간을 쪼개 그 어려운 방송통신대를 거쳐 전북대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마칠 정도로 학구파이며, 성실함의 아이콘이었다.

2015년말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으로 퇴임하여 다시 전북개발공사 사장 3년을 더했으니 무려 43년9개월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해 온 셈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취임이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바빠 뛰어다니면서 어려운 경영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등 '형님리더십'으로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의 열정을 보였다.

경영 지표에서 아쉬웠던 전북개발공사는 그의 취임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내실 있는 경영으로 2015년 276% 였던 부채비율이 2018년에는 112%로 낮아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2015년 1,062억원이었던 자본금을 2018년 1,342억원으로 확충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개발공사 퇴임사에서 했던 “이제 돌아갈 가정이 있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신앙생활에 몸담을 교회가 있어 행복하다.”는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고,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고 했다.

절정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고재찬 사장. 공기업 재임기간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낸 그의 능력과 경륜이 군산지역 사회에 필요한 시기이다.

할머니와 5남매



전북개발공사 퇴임식 직전에 모인 가족들



조용한 휴식

군산시 공무원으로 27년 봉직

임실에서 4년 동안 생활을 하다 군산으로 전출 신청을 한 그는 1979년 4월 16일 군산시 공단사업소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에 엄청난 토목사업인 155만평 임해공단을 조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임실 촌놈소리 듣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고 하였고,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일했지요.”

위낙 성실했던 그는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여관에서 일하다가 늦게야 퇴근하는 고된 일과를 계속했다. 그리고 점점 능력을 인정받았다.

공단사업소 근무 이후 수도과, 도시과, 감사담당관실, 건설과에서 근무했다. 6급 급수계장으로 일하던 얼마

후 중앙대 건설대학원 도시관리 과정 3개월 코스에 들어갔다.

“마지막 발표 시간에 제가 ‘우리는 대한민국 6급 공무원으로 안 해본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가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후배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곤 합니다.”

1994년 1월 토목직의 가장 선임이라는 도시계획계장을 맡았다. ‘오늘은 퇴근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직원들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월명공원 주변 고도제한지구, 미관지구 정비,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3년 동안 일했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도시계획과장을 맡았을 때, 천만

평의 산단이 있지만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산단인입철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 국토부나 철도청 모두 손사래를 쳤어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건설교통부 문을 두드렸고, 결국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하나의 결실로 남는다는 보람 있는 기억 중의 하나이지요.”

그가 사랑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오늘날 동백대교로 이름 지어진 군장대교 사업이다. 익산국토청과 협의하여 국도 4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군산과 충남을 잇는 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하는데 합의하였다. 당시 시장과 장관의 면담 일정을 잡느라 힘들었다. 결국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이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이 만들어졌다.



성광교회에서



차상영 목사님과 함께

군산성광교회 연수



선교활동



선교활동



군산의 명물이 된 은파 산책로와 물빛다리 계획을 포함하는 은파국민관광지 개발사업도 이 당시에 했으며, 2004년 '근대역사 경관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여 오늘날 근대역사 지구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세웠다.

그리고 전북도로 진출 신청을 했고 도청 관광진흥과 국제해양담당관으로 새롭게 공직을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예의 기술직 최고봉에 올랐다.

내 삶을 이끌어 준 성광교회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공장 생활을 했던 누나가 신앙의 힘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누나의 영향이었던 셈이지요.”

1975년 1월 5일 그가 살던 임실군 봉천에 교회가 생겼다. 그리고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한 이동휘 목사님을 만났다. 흠어머니와 함께 등록했고 지금까지 그는 가슴 속에 교회를 안고 산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매일 새벽기도로 시작했거든요. 시험 보러갈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받았고 모든 분들에게 신세를 졌어요.”

임실에서 군산으로 발령받아 갔을 때 이동휘 목사님의 권유로 성광교회에 나갔다. 공직을 하면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이 때 지금의 아내(박윤서)를 만나 1979년 결혼했다.

“어렵고 힘든 공직의 길을 대과없이 마친 건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지금도 피아노학원을 하면서 도와주는 안사람을 볼 때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젠 시간을 갖고 같이 다니면서 못해주었던 것들 해주어야죠.”

현직에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 “부천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큰 아들 내외와 서울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둘째 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앞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45살 때인 2000년 1월 23일 장로로 피택되었고, 11월 23일 성광교회 최연소로 장로에 임직되었다. 장로 임직 20년차를 내다보는 고재찬 장로. 그는 올해 해외선교위원회를 맡아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니 앞으로의 생활은 기독교인으로써의 본분을 다하려는 마음이 크다. 우선 4월에 성광교회에서 계획한 '예수님 고향마을 방문'에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다.

“올해 해외선교위원회를 맡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아프리카 우간다와 에스와티니를 방문하여 헌당 예배를 주선했고, 네팔의 북서부 지방에 세운 교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헝가리와 몽골 선교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관련한 사역이 이제 그의 몫이다. 그의 인생 2막은 종교인 고재찬으로 귀결될 것이며, 그의 성실함을 믿는 하나님도 크게 쓰시리라.

그의 소통리더십이 군산지역을 위해 더 많은 봉사의 발걸음으로 승화될 것이다. 교회 장로로써 무한 봉사의 길을 가는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고재찬(高在燦)

전북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수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역임
현재 군산성광교회 장로
녹조 홍조 근정훈장 대통령표창 수여



유부도에서 바라본 군산산단

가깝고도 먼 섬, 유부도 有父島

갯벌 복원, 희귀 멸종 조류 서식지 제공
해양생태계의 보고, 생태관광 거점으로
개발 필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한 때 정신질환자 수용 '수심원' 악명

글 | 허종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대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실제생활권이 군산인 장항 유부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육지에 나가려면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조그만 섬. 코앞에 보이지만 배를 타지 않으면 드나들 수 없는 가깝고도 먼 섬이 바로 '유배의 섬'으로 알려진 유부도이다. 충남 장항항에서는 8km 떨어져 배로 20분 거리이지만 군산에서는 1.5km로 불과 5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산이 생활권이다.

기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갯벌생태복원 작업을 추진한다는 유부도를 둘러보기 위해 만조 때를 기다려 군산 산업단지 인근 장산도에서 1.88톤급 선외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

섬에 가기로 약속한 이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 조그만 선외기를 타기가 겁이 나서 되돌아가려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섬인데도 군산에서 60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섬이라 마음 먹었을 때 한 번 가보자는 생각에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심한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선외기 갑판에서 정박을 위해 사용하는 밧줄을 힘껏 잡고 5분 남짓 버틴 끝에 유부도 선착장에 도

착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주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선장 면허가 있었다. 그래서 바람이 심한 날에도 배 운전을 잘해 생각보다 쉽게 온 것 같았다.

한 때 거주 인구가 많았던 1970년대부터 1985년까지는 유부도를 다니는 '새마을13호'라는 정기선이 군산항을 출발, 유부도와 군산 개야도를 돌아 왕복 운항되었지만 지금은 개인 배를 이용하여 섬을 왕래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 수용 '수심원'으로 악명

전체면적이 0.79㎢(약 24만평)로 염전면적을 빼면 실제로는 5만여평 정도이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물이 빠지면 생업을 위해 바다에 나가고,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 군산으로 불 일을 보러가는 섬, 바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동경 126°36', 북위 35°48')이다. 실제로는 군산 바로 눈앞에 있다.

유부도보다 북쪽에 위치했지만 서천군 옆에 붙어 있는 개야도, 연도, 어청도는 군산시 행정구역인데 그보다 훨

씬 군산과 가까운 유부도는 서천군에 속한다. 일제강점 암흑기인 1914년, 일본인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섬의 남쪽에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평평한 지형을 이룬다. 서쪽과 남쪽 해안에는 사빈해안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 해안으로는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유부도란 지명은 임진왜란 때 부자(父子)가 난리를 피해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살던 섬은 유부도(有父島), 아들이 살던 섬은 유자도(有子島)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고려시대부터 여러 명의 유배객들이 이곳에서 한 많은 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었던 '지옥의 섬'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적도 있다. 1974년 설립이 되어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었던 '사회복지법인 장항 수심원' 때문이다. 심지어 멀쩡한 사람도 끌려와 인권유린의 악행이 25년 동안 자행됐다고 전해지는 이 시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1997년 강제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 곳을 탈출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바다를 건너 군산으로 헤엄쳐가다가 빠져 죽기도 했다는 영화 같은 얘기도 주민들 사이에 전해진다.

마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 알카트라즈 감옥섬이나 영화 빠빠용의 소재가 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형무소 '악마의 섬(惡魔島)'이 연상이 된다.

입구에 '사회복지법인 장항 수심원(修心院)설립자 崔○', '정신수련(精神修鍊)의 도장(道場)'이라고 쓰여진 대리석 명판이 콘크리트 정문기둥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고, 굳게 닫힌 입구 철문 안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수용자들이 입었던 옷이나 기록 등 일부가 건물 안에 남아 있었다.

죽합과 생합 채취로 생계유지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싶거든 멀리 갈 것 없이 유부도에 가

보라. 누가 뭐래도 이 섬의 자라는 생태계의 보고인 드넓은 갯벌이다.

몇 명 살지도 않는 섬이라 서천과 군산에서 외면 받아왔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환경오염과 훼손이 되지 않아 지금은 생태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섬이 되었다.

염전과 김양식, 고기잡이 어업 등으로 수입을 올리던 시절 60여가구 120여명이 거주하기도 했지만(2010년 기준), 지금은 이 곳 주민 30여 가구가운데 빈집이 많고 실제로는 10여 가구 정도가 거주하면서 요즘 많이 나온다는 죽합과 생합 등을 채취하여 군산 등지에 판매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죽합 :껍데기의 길이는 12cm 정도 직사각형 모양이며, 몸은 누런 갈색에 매끈매끈한 각피가 덮여 있어 죽합竹蛤-맛조개-이라고 불린다.)

물이 빠지면 모래밭이 드러나 주변의 작은 섬들과 연결된다. 주민들은 이곳 갯벌을 농토로 삼고 경운기를 몰고 패

류 채취작업을 하러 나간다. 농사는 집집마다 텃밭을 가꾸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집에서 먹고 남은 채소 등은 군산 등지로 판매한다고 한다.

이 마을 송계운씨(57. 충남 서천군장항읍 유부도길 6번길 13-12)는 2살 때 아버지를 따라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당시 옥구군)에서 이사왔다고 한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크게 다친 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20여 년 전에 돌아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오식도, 내초도 주민 여러 명도 30여 년 전에 군산국가산업단지 보상을 받은 돈으로 유부도 염전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소금생산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고, 설상가상 염전제방도 터져, 지금은 도로 바다가 되어버렸다.

“죽기 전에 내가 사놓은 염전 한 번 보겠다”고 얼마 전에도 군산에서 노인 한 분이 다녀갔다고 송씨는 전했다.



폐허가 된 수심원



수심원 화장실



수심원 건물 통로



수심원 수용자방



유부도 패류 채취작업



채취한 죽합과 채취 갈고리

함께 모여 사는 유부도 주민들



유부도 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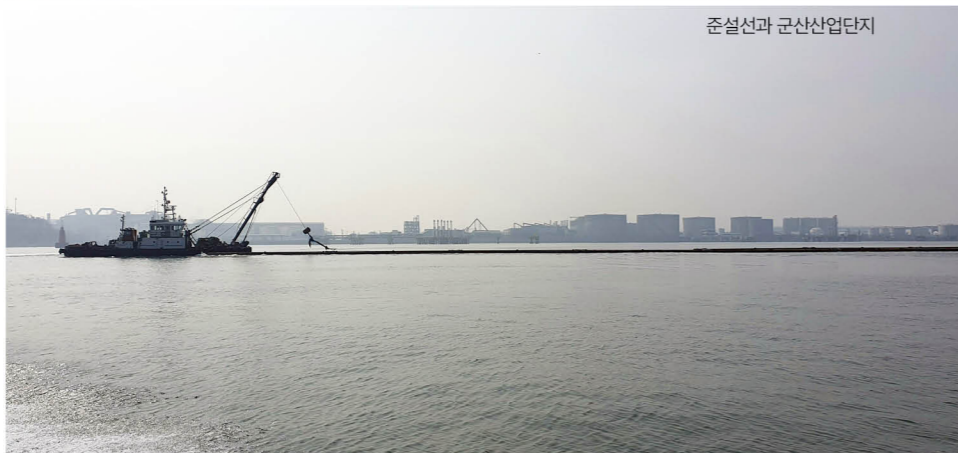
유부도 전경



유부도 기암괴석



폐쇄된 염전



준설선과 군산산업단지

섬 속의 섬, 고립된 탓에 생태계는 그대로

서천군에 소재한 섬은 총 15개, 그중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바로 유부도이다. 인구도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곳은 오랫동안 외면 받아왔다.

동네슈퍼 한 곳도 없는 이 섬의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2009년에서야 관정을 파서 각 가정마다 하루 2시간 씩 물을 제한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2014년 해저케이블 공사로 24시간 안정된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다.

지금은 군산앞바다에서 작업 중인 준설선이 해저케이블을 끊어놓는 바람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군산에서 발전기를 3대를 빌려다 교대로 가동, 전기를 공급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몇 가구 되지도 않는 이 섬의 밤은 바람소리와 발전기 돌아가는 엔진소리가 적막을 깨우고 있었다.

이 섬은 검은머리물떼새의 최대 월동지이기도 하고

세계적 멸종위기인 넓적부리도요를 비롯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의 조류가 찾는 곳으로 탐조객들이나 사진작가들이 종종 이 섬을 찾고 일반 관광객들은 없는 듯 했다.

지난 2008년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에는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으며 2020년까지 유부도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서천군에서도 5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장차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3월말이라서 그런지 검은머리물떼새 등 철새는 보기 힘들었다.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 이후 유부도는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들어 죽빨이 쌓이면서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태계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다.



유부도 백사장

남은
봄은
꽃으로부터
온다

3월을 넘어 4월, '꽃구경 사람구경'
멀리 가기 어렵다면 군산 근교로 나가보자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군산의 봄) 임피면 상주사 앞 마당 개나리



‘어렵고 힘든 이들이여 내 품으로 오라’

동면에 든 감성이 봄꽃으로 설렌다. 3월에는 서툰 몸짓으로 몸을 터는 꽃잎의 안달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남녘에는 꽃 봄인데, 아직 군산의 바닷바람은 우리에게 봄날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긴 시샘 가득한 군산의 변덕스런 날씨가 어제 오늘이 아니니 눈총도 이전 안녕이다. 그래서 군산사람들은 봄 앞에서 인내하고 움츠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지겹던 겨울도 이전 안녕. 그 까짓 꽃샘추위쯤이야 ‘어서 오라’했던 3월이 가고, 잔인한 4월이 왔다. 겨울의 잔상 앞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굽이 굽이 살얼음 낀 위기는 현실이다. 그래도 꽃 봄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겨울도 겨울 나름이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 힘들었다. GM 군산공장의 폐쇄 등으로 군산의 지역경기는 곤두박질 쳤으며, 그 여파는 심각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그래도 산자는 살아야 한다. 허전한 마음을 다잡고 봄 속으로 뛰어들어 가보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건 눈 속에 피기도 하는 매화이다. 길고 긴 겨울, 그리움 몇 자락을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가슴 깃을 풀어헤치듯 슬며시 내놓는 한 잎의 꽃 잎.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 곁들여, 구구장천 하얗게 지센 시련과 기다림의 흔적들이 슬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매화의 향기는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즈음에 구례 섬진강가로 가보면 좋다. 가까운 곳을 찾으려면 3월의 중순을 넘어서 부안 청자박물관 뜰에 나가보라. 기지개를 켜듯 부스스 몸을 터는 매화향기와 기다려 온 따듯한 날의 향연이 맞아줄 것이니.

봄의 전령사 가운데 산수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날이 일찍 풀렸지만 올해 남도의 산수유꽃 개화 시기는 3월 중순이었다. 어느 날 살며시 아이가 웅얼이 하듯 노란 봉오리를 내놓는 산수유를 본적 있는가.



서해 간월도 앞의 유채밭



(군산의 봄) 나포 불주사 입구의 봄 수양버들



(군산의 봄) 성산면 오성산 성흥사 옆길의 매화숲



섬진강 가 마을의 매화밭

굴곡 없는 인생길이 어디 있으랴만 산수유를 보면 시련 속에 핀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묘한 위안을 받는다. 마치 그 너머에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은 느낌이랄까.

구례 산수유 마을, 산 좋고 물 좋기로 으뜸인 여기는 봄소식을 알리는 산수유 축제가 3월 중순에 열렸다. 올해는 이미 늦었고, 내년을 예약하자.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꽃소식을 전하는 구례 섬진강 가의 산수유 군락을 사진으로라도 보는 건 어떨까. 상위마을로 올라가면 점점 더 기운이 차가운데 이 일대의 산수유와 매화가 만발하면 장관이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보면서 어려웠던 지난날들을 함께 날리고픈 마음 때문일까. 전국에서 몰리는 봄꽃 매니어들 때문에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 봄은 꽃으로부터 온다. 시련이 깊어야 기쁨이 더하듯이 기다리는 마음이 깊을수록 봄은 그 맛을 더해준다.



구례 섬진강가의 매화에 둘러싸인 마을 풍경



꽃망울을 터트리기 직전의 산수유

먼 길을 떠나지 않더라도 '군산의 봄' 또한 손을 뻗으면 잡히기도 하고, 기다리는 여심(女心)처럼 성큼 가슴에 안겨오기도 한다.

가까운 군산의 근교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계절이 갈린다. 말하자면 성산, 나포 임피, 서수와 개정, 대야, 옥산 근처는 양지 별에 봄소식이 무성한데, 서쪽인 회현, 옥구, 옥서, 옥도 쪽은 아직 겨울의 끄트머리일 때가 많다.



봄비를 흠신 맞고 걸어가는 할머니들

먼 길 떠나기 어려운 이여, 가까운 들과 숲으로 가보자. 가서 겨울의 한숨을 닦아 서럽게 자태를 드러내는 매화꽃이나 산 언덕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미는 철쭉과 진달래를 찾아보자.



(군산의 봄)
임피면 상주사 대웅전 옆에 핀
백목련



밭을 가는 농부의 손길에도 봄이 왔다.

새들강 자연학습장에 들어가니 수선화 군락이 보기 좋게 피었다.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하는 이곳에서 노랗게 자태를 드러낸 맑은 수선화를 보다니 다행이다.

오성산 자락에도 봄이 들어왔다. 성흥사에 들어가기 직전 도로변에 백매와 홍매가 뒤섞인 매화밭이 펼쳐졌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린 봄꽃의 향연이다.

양지바른 고살에 나와 설부른 봄날의 편지를 전해주는 개나리, 애절하게 목을 내미는 산수유도 좋다. 그리고 온 몸을 던지는 목련과 처절하게 잎을 떨어뜨린 그 '낙화의 흔적'에 애달과 해보자.

고목의 몸통이에서 절제절명의 망울을 터트린 꽃 한 닢을 보면서 어려운 경계를 이겨내려는 몸부림을 생각하자. 안타까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군산의 오늘, 기다리는 봄날이 온 것처럼.

유서 깊은 고찰 임피 상주사에는 아직 응달이 많다. 개나리는 흐드러졌으나 산수유는 만개하지 않았다. 아마도 4월 첫 주쯤에는 만개할 듯싶다. 이 절의 대웅전 옆에서 자태를 드러낸 백목련 한그루가 외롭다.

나포면의 불주사 법당 앞에는 남녘에선 이미 시든 매화가 만개하기 직전이다. 멀리 바라보이는 산마다 봄기운이 무르익어간다. 불주사 들어가는 논길에 휘영청 늘어진 버드나무에서 봄을 읽는다.



(군산의 봄)
나포면 새들강 자연학습장의
수선화 군락



나누니까
행복하다는
기부천사

신진수산 나용일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3275@naver.com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별 의미 없는 통계수치라는 것은 우리사회 여전히 궁핍한 삶을 부지하느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며 알 수 있다. 가진 자들의 부(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며 견고해져 가는 반면에 가난은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로서 언제부턴가 이렇듯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평가 기준은 오로지 경제력으로 좌우되고 그만큼 인성은 메말라가는 세상이다 보니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범죄는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패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하겠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 믿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가진 자들의 몰락에서도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분수를 모른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좇다가 파멸에 이르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차고도 넘친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만 굴러간다면 가진 것 없는 자들로선 삶 자체가 고통일 것이다. 하지만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나누려 들고 그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도 있다. 자신도 워낙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기에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눔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신진수산 나용일 대표(65)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좌절을 이기고 꿈을 찾아 날아오르는 섬 소년

1954년 고군산군도인 연도(煙島)에서 3남1녀의 셋째로 태어난 소년 나용일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한데다가 소아마비마저 앓아 지체장애 3급으로 그야말로 불평등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출발이었다. 일찍이 홀로 되어 이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미안함과 애달픔으로 눈물이 마를 새 없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나용일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속 깊이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내달리 다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어머니를 도와 수산업에 종사하며 집안일과 사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주경야독 끝에 중등, 고등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으며 이후 전북대행정대학원과 군산대평생학습과정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남다른 학구열로 자아계발과 성취를 위해 열정을 쏟게 된다. 2004년도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관리자과정 8기 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재학생과 동문 간 활발한 자치활동으로 화합을 다지고 2005년에는 군산시 평생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기여하는가 하면 이후 군산대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리더라는 자긍심으로 자신의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늘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범죄피해자·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봉사활동

2000년도부터 군산경찰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보호활동에 참여한 나 대표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도움을 주는 일에 앞장서는가 하면 2008년부터는 한국BBS전북연맹 및 군산지회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매년 200~30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제아동, 비행청소년 선도운동의 일환으로 1:1결연을 통한 친구, 부모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편 그밖에도 기초질서교통캠페인, 학교폭력에방캠페인, 청소년 산간문화탐방에 후원하는 등 청소년범죄예방과 선도에 힘써 오는 동안 매년 이들에 대한 정기후원(1인당 20만원/5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7년도부터 몸담아 회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서군산로타리클럽에는 20여 년간 봉사성금 8,000여만 원 및 장학금을, 로타리 세계소아마비박멸 특별프로젝트에 1,200여 만 원을 기부, 세계적인 소아마비 완전퇴치 운동에 앞장섰고, 서군산 장학재단 이사로서 지역 장애학생 16명에게 매년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2008~2009년까지 서군산로타리클럽의 회장역임 시에는 빈곤, 문맹, 폭력 등의 사회적 그늘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에도 헌신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

노인복지시설(경로당)후원

평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남달랐던 나 대표는 노인을 돕는 일에도 앞장 서 2010년도부터 경암, 수송, 조촌동 경로당에 매년 30~50만원씩 후원하고 동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에도 일정액을 후원하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에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연말에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내의를 구입하여 선물하고 2017년도 5월 중에는 개정면 대방경로당 어르신 30여명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으며 대야 및 성산 인근 경로당에 쌀 50포대를 쾌척한 바 있다. 그밖에도 2015~8년에는 경암동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경로자치 후원금, 주민자치위원회 후원금, 새마을부녀회 후원금조로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기도 했다.

산악회 육성

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산악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소속 37개 산악회단체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2,000여 산악동호인들의 권익보호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산악회 발전과 올바른 산악문화 정착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회원 상호간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 각 회원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축제, 단체 후원

나 대표의 후원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2000년도 경부터 매년 장애인 등반대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행사나 축제 등에 후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행상에도 큰 관심을 가져왔고, 2016년도 군산시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때는 장애인 체육발전 기금 100만원을 전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16~8년 기간에는 군산시지체장애인협회에 20kg들이 백미 30포대씩을 기탁하기도 했는데 이런 선행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지극히 겸손한 품성으로 주위의 칭송이 끊이지 않는다.

국가보훈단체 후원

그런가하면 2015~6년 기간에는 베트남참전전우회의 전적지 순례, 베트남결혼이주여성 격려행사과 안보결의대회 등 보훈

단체 행사 시 2회에 걸쳐 각20만원 씩 후원금을 지원한 바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어려운 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나눔

사실 나 대표의 숨은 선행은 1980년대 이전부터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지는데 당시 역전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3명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에 걸쳐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경암동의 통장이었던 김 모 씨가 남편의 퇴직과 본인의 암투병 등으로 어려운 생계에 놓인 것을 알고 수시로 찾아가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베풀기도 했다.

장애어린이를 돌보노라 소득이 현저히 줄어 생활고를 겪는 이웃 고 모씨에게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5~7년 기간에는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선도적 동참한 바도 있다.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제공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이 군산시 산악연맹 회원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어 한국사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참전동우회와 연대한 행사활동에 기부를 실시하기도 했다.

취약지역 정화활동

또한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은파유원지, 월명산 공원, 청암산, 신시도 대각산 등에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가는 것을 알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BBS전북연맹, 장애인단체, 군산시산악연맹, 서군산로터리클럽 등 여러 단체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질서 있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왔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신체적, 경제적 고통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많다. 그렇다고 국가가 그 모두를 책임질 수도 없다. 일부 독지가나 봉사단체, 종교단체, 나눔 공동체 등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반면에 정작 재력가로 알려진 사람들은 쉽게 주머니를 열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다반사다. 탐욕으로 날이 지새는 세상, 인륜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온갖 부정과 탈법으로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도 그나마 세상에 일말의 온기가 유지되

는 것은 나용일 대표 같은 따뜻한 심성의 인물이 있기 때문일 게다. 그래서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봉사하며 살아오는 동안 국회의원 상과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전라북도 경찰청장, 군산경찰서장 상을 비롯하여 국제로타리클럽 등 수 많은 기관 단체에서 표창과 감사패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그는 상을 받기 위해 한 일도 아니고 자신이 했던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상을 받게 돼 쑥스럽다며 멋쩍은 표정을 짓기도 할 만큼 소년처럼 순수한 표정을 보여준다.



7년째 교통봉사, '딸 바보'

김재만 (72) 씨

- 군산미장초 아이들의 '할아버지 엄마'
- 전남 광주에서 매주 올라오는 열정
- 파인빌 1차아파트 상가 '김은정피아노학원' 돕기도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 온 2019년 3월 15일 아침 8시 30분경 군산미장초 후문 사거리. 영하권으로 푹 떨어진 아침 기온 때문인지 병거지 모자를 눌러 쓴 김재만 할아버지(72)에게서 하얀 입김이 흩어져 나왔다. 7년째 아이들의 안전 등교를 돕고 있는 김 할아버지는 이 날도 어김없이 “애들아, 얼른 이리 와! 신발에 흠 묻잖아. 이쪽 마른 데를 밟아” 라면서 아이들의 손을 이끌었다.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거나 하품을 하면서 걸어 온 몇몇의 아이들은 수줍은 인사를 보냈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반가워했다.

“제 첫 손자가 7년 전 1학년이었는데 커서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가 여기 6학년엔 다니거든요. 미장초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제 손자 같아요. 그러니 예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김 할아버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세우거나 보내 주다가 아이들을 학교 문 앞까지 바래주는 일을 계속 했다.

군산의 신도심이면서 전라북도 안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미장초. 이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온 등교 봉사활동의 모습이다.

광주가 집인 김재만씨의 딸 은정씨가 14년 전 군산으로 시집왔고, 첫 손자가 학교에 들어가자 교통봉사를 시작했다. ‘딸 바보’ 아빠가 ‘손자 바보’ 할아버지로 바뀌었다.

세월은 그를 아빠에서 할아버지로 만들었지만 아내는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지극 정성은 그대로이다. 그는 매주 월요일 광주에서 출발하여 군산에 와서 금요일 아침까지 미장초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엄마, 딸 바보’로 불리며 교통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파인빌 1차아파트 상가 2층에서 ‘김은정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딸을 돕는 일도 물론이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광주 집에 갔다가 다시 월요일에 올라오는 생활이 익숙하다. 같이 늙어가는 아내 강연씨 또한 세월호 침몰 당시 눈물겨운 봉사를 할 정도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 서 왔다.





그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사돈택 군산을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군산의 모든 게 익숙해진 '반쯤은 군산사람'이 되어버렸다.

미장초 학부모회 환경진 회장과 이주은 부회장 등 임원들도 "아이들을 위해 멀리 광주에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신다는 건 웬만한 성의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는 건 그야말로 '행운'이지요. 무럭무럭 크잖아요. 첫 손자가 벌써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키가 174나 돼요. 이젠 제가 올려 봐야 한다니까요."

김재만씨는 광주에서 재가복지팀장으로 일하다 정년을 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의 아프고 힘들고, 세상을 뜨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았는데 내색하기 어렵지만 속으로는 힘들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아이들이 등교를 돕는 일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일할 때에 비교하면 마음이 무척 가볍다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 엄마'라고 응석받이 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래하다 보니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찾아와 어릴 때를 기억하고 인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 앞 교통봉사는 미장초에서만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학교안전지킴이, 경찰, 교

육청 등에서 아침마다 나오지만 여기처럼 객지에서 온 사람이 7년째 봉사하는 곳은 이례적이다.

"제가 가장 예뻐하는 딸이 시집와서 그런지 저는 군산이 편안합니다. 둘째 손자가 지금 6학년인데, 아이가 중학교로 진학하더라도 미장초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계속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딸이 서울에서 피아노학과에 들어갔을 때였지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공부 때문에 지금 피아노학원도 하고요."

평생을 '딸 바보'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그이기에 지금도 딸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받지 치워지지 않았던 걸 치워줬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한다.

"보기도 아까운 딸이 군산에 사니까 앞으로도 군산을 계속 찾을 것이고, 여기에서 봉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미장초 앞에는 교통봉사 3층사가 있다. '할아버지 엄마, 딸 바보'로 불리면서 7년째 교통봉사를 하여 온 김재만 할아버지(72), 학교안전도우미로 일하면서 8년째 봉사하는 이종임(전공무원, 70)씨와 경포초에서 3년을 봉사하다가 4년 전에 막내 손자가 입학하면서 미장초 봉사를 시작한 원칙주의자 소재승(택시업, 75)씨가 그분들이다.

손자들의 안전을 위해 나온 할아버지들의 교통봉사는 좋은 선례로 기억될 것 같다.



춤으로 소통하는
 일상의 행복

문화예술교육 '띄움' 이주연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 월명동에 위치한 '일상예술' 띄움은 무용가인 이주연 대표가 지역의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문화와 결합할 수 있는지 모색 끝에 주민의 역할과 참여로 소통하고자 설립한 건강한 예술 커뮤니티다.

'설거지춤과 빨래춤' 개인의 삶을 엮어 춤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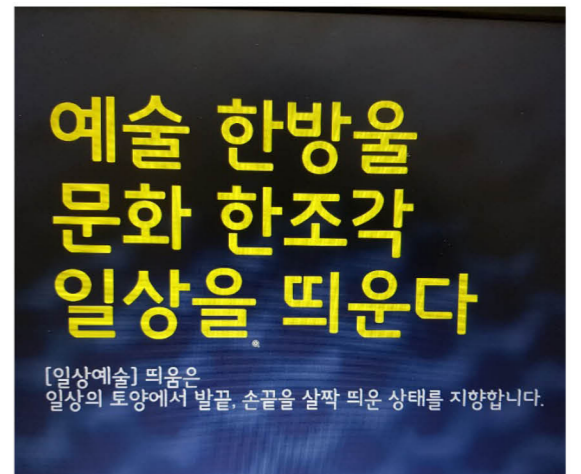
군산이 배출한 무용계의 선구자였던 고 육정림 선생과 군산예술협회 이사 김정숙 선생으로부터 한국무용을 사사한 이주연은 2004년도 학원에서 입시위주의 무용을 지도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사이에 다툼이 잦고 결석률이 높아 고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래서 춤을 통한 수업으로 건강히 움직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어 만들어진 춤이 바로 우리 장단에 맞춘 설거지춤과 빨래춤으로서 이것이 커뮤니티 예술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언뜻 자기주장이 강해 완고해 보였지만 그 이면은 심리적으로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었기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춤을 고안했던 것이 적중하여 참여자끼리의 소통은 물론 강사 및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시간이 더해가면서 서로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건강한 커뮤니티로 활성화되어갔습니다" 이주연 대표는 출발 초기의 감회를 이렇게 들려주며 아직 커뮤니티댄스라는 춤의 장르가 낯선 때였지만 춤을 통한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비전공 일반인들과도 춤으로 만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말을 곁들인다.

이후 한국메세나협회 후원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문화사각 지대에 놓인 어린이들 대상 문화교육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하나의 기획을 맡아 선정됨으로써(대전대덕소년원)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우당탕 뒤죽박죽 시끌벅적 살금살금, 어린이 새가 되어 금강을 날아오르다

이 대표는 군산에서 2009~2011년 동안 3년에 걸쳐 <내 이름을 부르면 "Yes, I can!"> <레인보우 프로젝트> <미운 오리새끼 금강을 날아오르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군산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만든 '철새의 춤'은 군산세계철새축제 개막식에서의 공연으로도 선보인바 있는데 이때는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어우러져 춤으로 소통하는 멋진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아파트 주민들과 커뮤니티댄스로 소통하기

현대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주민 간 소통의 부재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풍조를 보인다. 띄움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노력으로서 2014부터 2015까지 수송동 소재 모 중산층 아파트에서 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참여자들과 아파트의 주차문제, 쓰레기 분리수거문제, 경력단절여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 알뜰장터, 플레이백 시어터 즉흥 연극공연, '제32회 전국연극제in군산' 홍보 플래시몹을 주도,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아파트입주민대표 측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말았다.

영화동 골목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만든 개인사 기록과 '얼씨 좋다 바람분다' 사진전

2016년에는 영화시장 상인들과 영화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시장에 다시 찾은 봄'이라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을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영화동은 일본인들의 거주지였고,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역으로 군산의 아픈 역사가 깃든 중심지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설립과 관공서의 이전 영향 등으로 이제는 낙후를 면치 못하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띄움은 이 지역에 문화예술의 파스한 입김을 불어넣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문화를 확산시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이에 영화동 주민들, 특히 피난민으로서 타 지역에서 군산으로 이주하여 터를 잡은 1세대와 2세대 어르신들의 삶을 되물은 '영화동의 연대기' 속에 주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사진 전시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간의 유대감은 한층 더 단단해졌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자체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산신영시장 상인문화교실 위탁운영

이 같은 영화동의 소식은 군산의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져나갔다. 때마침 문화관광청 시장육성사업에 군산신영시장이 선정되어 문화예술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가 점증함으로써 띄움에서 상인문화교실을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장애인들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춤 이야기

2017년에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정신·지체장애인과 군산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콘서트' 무용부문에 안무 및 연출로 참여했다.(군산장애인복지관주관) 이 콘서트는 뇌병변을 비롯한 세 가지 복합장애를 지닌 8살 소녀와 정신·지체 장애인들, 검도관 관장, 떡집 대표, 엔지니어, 주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



연이었다. 이들은 10번의 만남을 통해 '기억속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만의 동작을 춤으로 만드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이후 2018년에는 군산장애인연합회 주최로 알뜰 중독자 12명과 무용가 12명의 커뮤니티 공연 '지금 여기에 있다'를 발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교육의 1차 목표는 '어울림'이라 말하는 이주연 대표는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함께 어울려 일상의 평범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술교육자에게 맡겨진 구체적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띄움이 주도하는 '소통중심의 예술교육'은 그동안 기술습득 위주의 예술교육에 치중했던 선생님들에게 '아, 예술교육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신선한 깨달음을 줌으로써 장애인시설관계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함께 참여한 비장애 지역주민과 무용수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계기도 되어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되짚는 소중한 경험으로 삼게 된다.

다문화가족 예술 숲 캠프

어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형태 중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라 한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친

숙한 이웃으로 자리 잡았지만 피부색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국의 문화만을 주입하는 형태에 치중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띄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주 산소리 숲 마을의 의뢰에 따라 다문화가족캠프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다문화 엄마들이 남편 자녀들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신문지를 이용하여 내 자녀 꾸며 주기를 하였는데, 의도한건 아니었지만 각자 그들의 전통의상과 신발까지 신문지를 이용해 만들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고 패션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군산의 축제

띄움은 군산 대표축제 중 하나인 '시간여행축제'(1, 2, 3, 6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1회 때는 커뮤니티공연을, 2~3회 때는 개막식전 '천인의 퍼레이드'를 기획, 진행하였고 6회 때는 개막식전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며 군산의 시조(市鳥)가 갈매기인 것에 착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갈매기를 만들 재료인 페트병을 조달받고 시민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공간

띠움은 2019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실시하는 개별 성격유형검사 등 학생 파악자료의 경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학내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 가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도움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여러 번의 자체 회의로 활동을 설계하고 모의수업을 통해 수정을 반복하며 겨울 내내 '소통하는 춤으로 행복한 교실'이라는 활동을 준비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은 반 친구와 친구가 모두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호흡으로 같은 교실 안에서 음악으로 채우고 건강한 스킨십으로 만들어가는 춤, 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심신의 발달에 있어 제일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들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3월 군산의 15개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년 너의 춤을 추면 돼'가 5월11일부터 1기(오전10시) 2기(오후 1시)로 나누어 군산지역거주 초·중등생(만7~15세)과 그 가족을 만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각 기수 당 25명을 모집한다. 또한 올해도 띠움이 기획, 진행하는 '댄 스드로잉'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도와 충청도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찾아간다.

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릴레이 방식으로 갈매기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 후 갈매기 조형물을 들고 함께 행진할 청소년 참여자들을 모으기도 했는데 워낙 늦게 부탁을 받는 바람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단 3주 만에 급히 이루어졌다. 특히 단 일주일 만에 퍼레이드 행진 참여 청소년 769명을 규합했던 일은 띠움 자체에서도 놀랄 정도의 성과로 남고 있다. 이 멋진 경험을 계기로 띠움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목표를 가지게 된다.

예술은 작품을, 예술교육은 삶을 만들어 간다

지난해에는 00교도소의 여성수감자들과 무용을 통하여 단절되고 무료한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 인들로선 감옥 안에서 춤을 배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띠움에서는 문화사각지에 놓인 사람들과 춤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감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활동 중 몸의 부분움직이기에서 어느 수감자가 "내 몸에도 발가락이 붙어있었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라는 말을 했을 때 몽클한 감동과 함께 그들과 예술교육을 통하여 서로가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상예술 '띠움'
군산시 월명1길3
(클래시움APT.상가 3F)
문의 010-3088-0652





군산의
새로운 가치발견,

상상곳간

상상력 보물창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글 | 박청숙(편집위원)
작가, 상상곳간 회원
njpcslife@gmail.com

상상력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아이디어에 모아두었던 상상력들을 잘 반죽하면
얼마나 근사한 결과물이 탄생할지 상상만 해도 재미있다.
게다가 한사람의 상상력이 아니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상상력 모음이라면?

현실 속에서 상상력 보물창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군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여 군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군산을 알리고, 군산의 미래를 함께 모여 고민하는, “상상공간”이라는 보물창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2017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평생학습 지원하고, 군산시가 주관한 “근대역사 상상공간 아카데미” 강좌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이 군산학, 군산의 문화 예술, 미디어, VR교육 까지 이수한 후에 10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회원들의 건전한 상상과 의견을 바탕으로 군산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군산시 정책을 위한 열린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군산시민의 역할을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에 필요한 심화교육 등의 역량강화사업, 다양한 행사와 지역모임에 참여하여 현장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현장활동사업, 상상공간 온라인 소식지 “같이&가치”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개인별로 블로그 등 SNS를 통한 군산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상상공간”은 2017년 전북평생진흥원에서 주최한 ‘전북을 바꾸는 생생도민 사업제안 공모사업’에서 장려상을 받은 ‘상상공간 생생시장(재래시장 살리기)’을 비롯하여, ‘방치된 철길 재생을 위한 시민의 제안’ ‘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군산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먼저 행동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이라는 색깔을 군산도시재생사업 위에 덧입히고 있다.

작년에는 군산시 공모사업에 상상공간이 제안한 ‘G-맵’프

로그맵을 진행한 바 있다. ‘G-맵’프로그램은 군산시 지역 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의 위치를 지도(G맵)에 표시하고 지도상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곳 관련정보와 교육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지도를 만드는 12회 프로젝트. 블로그와 사진 촬영 및 보정 교육을 거쳐, 약 8회에 걸친 수업으로 G맵을 만드는 성과를 올렸다.

그 외에도 군산시 인구정책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 참여를 위해 수차례 자발적 사전 토론회를 거친 후, 회원들이 원탁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 오프닝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전반 운영 및 야시장의 실태와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상인회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올해 3년차를 맞는 ‘상상공간’은 군산과 구성원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실천과제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 근대화거리 여행 코스를 중심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상상공간’ 회원들은 근대역사문화 경포천과 옥구선 철길을 활용하는 차 없는 도시를 추구하고, 시내에서 모임 시 나부터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여 시내에서는 걸어 다니기 운동을 일상화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지구 거리 내 부착되어 있는 “군산야구거리” 등 다양한 문화유적지 안내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은 해당 지역을 직접 순회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나 안내판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각종 안내문들이 잘못 게재되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즉각 고쳐지지 않으면, 잘못된 내용은 사진, 블로그, 포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파한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상공간이 모니터링 요원이 되어 실태 점검과 확인 작업을 거쳐 해당 부처에 정정 요청을 하고 있다.



구 법원 앞에서



단체사진



화교 박물관

아울러 군산 근대건축물 탐방활동도 함께 전개하여 도시개발로 사라져버린 옛 건축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설명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특정장소에만 편중되어 군산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와 하며, 군산의 구석구석을 느끼고 알아가는 재미를 주기위해 스토리텔링의 돌레길을 시도하는 것이다.

소설 ‘탁류’길에 맞춘 동선과 그 시대 존재했던 건축물들의 역사를 연계함으로써 픽션과 넌픽션의 경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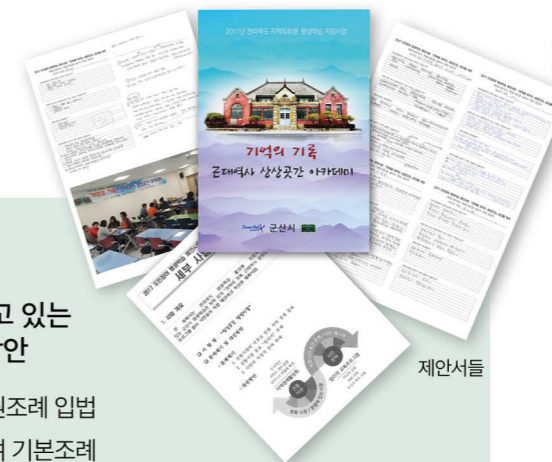
빈고를 야시장 지원활동



근대역사문화지구 거리순회 활동

상상공간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및 지원 방안

1.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입법
2.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3.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
4.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활성화
5. 개북동 국도극장 중심의 복고문화거리 조성
6. 명산시장 활성화
7. 영화동, 월명동 차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을 위한 제언
8. 중앙로 활성화
9. 동국사 주변 역사유물 전시관 명칭공모
10. 군산 철길 활용
11. 기타 군산시 공모사업 참여



제안서들

발행 / 상상공간 발행일 / 2018. 04. 17 등록번호 / 205-82-84009호

"상상공간"은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어 군산시가 주관한 "기억의 기록, 근대역사 상상공간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모임을 가집니다. "군산 상상공간"은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역 모임과 행사에 참여, 홍보 모티빙 및 사업발전과 참여, 회원과 지역 명칭화를 도모합니다.



온고지신 [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알.

▲ 군산 곳간의 이야기 "유곽고시장?"

일제강점기부터 명산시장은 월명동 인근에서 넓은 땅에 일본인들이 조성된 곳으로, 1920~30년대 유곽과 가평의 거리였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유곽 8곳에 자영업의 가정이 있었고, 조선인이 운영하는 3곳에 25명, 가업을 전수시키는 학교 등이 있었다. 당시 초남에서 가장 큰 유곽 거리로 알려진 상업에 맞추어 가평초 조선인들이 인근에서 재수업을 가꾸어 가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형성된 곳이다. 독립 이후 일본인들이 태우고 상인들이 허가를 받아 노점과 인근 주민이 모여드는 유곽과 시장으로 불려다가 일본이 금치법에 의해 명산시장으로 개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 다시 활기를 찾는 "명산시장"

명산시장은 현재 상인회와 군산시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전통시장 살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2017년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장래명 명산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으며, 특히 '빛 고운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군산시에 새로운 야간의 활기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명산시장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0 (명산동)
Tel. 070-4038-5328 Fax. 063-464-5328

빛고운 야시장
1900 is Argon!

낙지요통	마약김밥
바베크요통	보리요통떡
보리떡도넛과 차	술불꼬치
와일드푸틴	월미아이스크림
황거치즈버거, 스테이크	국수거리

금토 늦은 5시~9시
군산 명산시장 특화거리

서 역사와 낭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 여행을 시험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다.

상상공간 신상철 회장은 "우리 스스로 행복과 추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역할과 참여가 있어야 하고, 우리 가슴 속에 행복으로 남아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과 문화가 남아야 한다. 모두에게 행복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따뜻함과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는 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에 관한 지식 및 감동을 줄 열정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족을 초청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여 기록하는 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가 시설 중심의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소프트파워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주변의 유사한 역사 문화와 연계함으로써 마을의 정체성 확립, 지속 가능한 활력창출의 요소의 대안적 접근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상적인 이상향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심인심색을 지닌 회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군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대안을 가득 담고 있는 상상공간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다.

상상공간의 멋진 아이디어들이 모두 현실정책에 반영되어 공간이 텅텅 비우게 될 날을 상상해 본다.

"당연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내 지역에 미비한 곳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멋진 상상공간은 황금알으로 가득 채워져 나갈 것을 믿으며, 힘과 마음을 합해 더 열심히 연구에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선순 회원)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의 발전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교육은 변화라더니... 군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상상공간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신선아 회원)

"멋진 선생님들과 회원님 기운을 받아서 지역에 많은 도움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나부터 먼저 서로에게 도움이 됨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을 때, 모두와 각자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기 보다 줄 수 있음이, 더 큰 일임은 체험하는 순간 순간입니다" (신상철 회장)

사람 나고 돈났지, 돈 나고 사람났나!

영화 '돈'을 보고 나서



★TIP!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 이야기'
알고 보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TV나 영화를 즐겨 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영화관에 가는 일은 영화 자체를 싫어 해서가 아니라 영화관에서 나오는 거대한 음악소리나 효과음을 견디기 힘들어서다. 이런 내가 영화감상문을 쓰는 일은 다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다만, 평소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 사람도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하며 공감을 이끌어 내는 글을 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영화를 보았던 분들이 영화에 대한 동질의 시선 혹은 다른 견해로 글을 읽게 되고 잠시나마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신 후수저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 둘째, 번호표를 처음 소개해 준 직장 선배가 끝내 번호표의 각본에서 엑스트라로 전락하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순간 아직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을 통한 가족애를 보았을 것이다. 셋째 때로는 경쟁상대로 때로는 희·노·애·락으로 함께 지낸 직장 동료의 부친상에서 몰래 훔쳐 본 동료의 아픈 눈물을 보았을 것이다.

영화 '돈'의 감수성

영화는 처음부터 몰입도 높은 전개를 통해 굉장한 흥미를 유발했다. 간간히 매니저, 브로커, 번호표, 부딪크, 스프레드, 공매도 등 어려운 용어의 등장으로 스토리에 내 지능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한 순간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집중력을 끌어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다 보았다'는 드라마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류준열이 있었다. 내면의 감정 선을 외면까지 끌어 내 온몸으로 보여 준 그의 연기가 눈 부셨다. 단연코 그의 연기의 포인트는 강렬한 눈빛이었다. 실제로 핏대가 빨갛게 선 눈과 반항아 같은 눈빛은 아직도 선명하다.

"일한 만큼 벌어." 라는 명언을 날리며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을 맡은 조우진의 연기 또한 영화에 입체감을 주는 조커 역할을 해냈다. 또한 차갑고 또렷하며 살짝은 신비한 목소리로 번호표가 증권가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준 유지태의 절제된 연기력도 손 꼽을만하다.

영화 '돈'의 매력 중 하나는 '번호표', '복분자', '사냥개' 등

과 같은 캐릭터들의 별칭이다. 이것은 영화에서 단순 재미를 넘어 캐릭터를 정확히 이해하며 영화에 더 깊숙이 빠지게 하는 흥미 유발적 요소다. 그리고 빼놓지 못할 영화 속 '깨알 홍보'가 있다. 주인공의 별칭을 '복분자'로 짓고 간간히 복분자 농장을 영화 배경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영화의 박누리 감독이 고창 출신이라는 것.

돈 없는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

돈은 우리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이라는 가치의 실현에도 적잖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돈을 위해 꿈을 갖기도 현실을 살기도 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모순된 현상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지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인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

하루가 멀다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세대 간의 불통과 가치관의 차이가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가치관일지도 모른다. 기존에 권선징악 적으로 받아들였던 돈에 대한 가치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도 우정도 건강도 어쩌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현상적 모순을 안고 있는 지금 세상은 행복의 추구, 돈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홍보팀장 김정인

나도 한 때는 주식에 열을 올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1998년 즈음 우리나라에 막 IMF가 들이닥친 직후 주식시장은 상당히 호황이었다.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꼼꼼히 읽고 스크랩을 했고 주식 가이드북을 사서 정독을 하며 주식 공부를 시작해 소액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것 같고,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며 내려가는 것만 같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이익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동안 눈을 떼지 못하는 정신적 소모와 부동자세로 오후 3시까지 앉아 있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부작용은 생각보다 큰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몇 달의 경험을 통해 '내가 산 금액보다 내가 만족하는 수익의 몇 프로 선에 주가가 다다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판다.' 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결과는...? 결과는.. 말하기 싫다. 어떤 주식은 감자를 하더니 이내 없어져 버리기도 했다.

돈의 유혹에 감하지 않는 힘은 결국, 양심

영화 '돈'의 주인공 역시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욕

망으로 중권 가에 입성하여 주식 브로커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골 출신의 소위 말하는 후수저 청년이다. 그는 직장 선배가 소개해 준 일명 '번호표'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굴리는 고객(자산세력)을 뜻하는 사람을 만나 예기치 못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의 유혹에 휘말리고 계약에 휩쓸리며 서서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결국 돈이 아니라 돈이 갖는 숫자의 위력에 스스로 갇혀 자아를 상실하게 되며 위기에 처하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전개되고 만다.

그러나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일생일대 최고 금액의 돈을 움켜쥐게 되는 운명의 순간, 의외의 선택을 하며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한 희망을 던져준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물질적 수단인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권리는 결국 우리의 양심이며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준다.

어떻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본다. 첫째, 간의 혹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한 아버지를 찾아 갔을 때 넉넉한 용돈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찬 통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는 어쩌면 많은 돈을 얻게 되어도 정작 바꾸기 힘든 시골출



가슴을 울리는 천사들의 합창

은파소년소녀합창단 이하경 지휘자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어 조화를 이루고, 여러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나의 개성을 잃지 않는 일, 그런 게 잘 섞여야 합창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 하나의 소리가 모여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메시지가 되어 청중의 가슴에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라.

한 곡의 합창이 완성되려면 한 사람 한사람의 발성 연습에서부터 곡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 내야 하며, 그런 개인의 소리들을 합창곡의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휘자는 합창단 공연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화려해 보이지만 연습과정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을 모두 감당해 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정을 홀로 견뎌내야 하거든요. 마치 ‘거친 들판에서 홀로 새 벉을 맞는 고독한 목자’와 같이 때론 외롭고, 쓸쓸한 게 바로 지휘자의 자리입니다.”

2018 군산 진포&국제예술제

군산시간여행축제 폐막식 식전공연





은과소년소녀합창단의 이하경 지휘자는 천생 음악 선생님답게 자신감에 차 있지만 그 고독의 그늘을 멀리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력이 말해주듯 그녀는 어느 정도 거친 바람 앞에 넉넉하게 다가설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

어린 아이들과 자투리 시간을 내서 연습하면서 그녀 스스로 때론 맨 바닥에 뒹구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일희일비하거나 안달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씩씩한 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천직인 음악과 합창이 있기에 단원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은과소년소녀합창단은 군산지역 초, 중학생들 50여명으로 결성된 소년소녀전문합창단이다. 이 합창단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리틀어린이합창단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은과소년소녀합창단, 푸른소리중창단으로 정기연주회, 교류음악회, 특별·잔조 출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갈수록 합창교육의 장이 줄어드는 현실이지만 은과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해 10월 창단연주회를 개최하며 관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필자도 초등학교 시절 합창부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한 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어우러져야 했다. 그렇게 노래를 하며 추억을 쌓았다.

최근 근대역사박물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이들의 노래를 듣고 그 때의 기억이 오버랩되며 알 수 없는 기분과 감동을 함께 받았다. 무대 위에 선 단원들과 지휘자, 반주자의 호흡이 좋은 기운으로 다가왔다.

“합창을 하게 된 계기는 전주MBC어린이합창단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는데, 당시 은사님께서 제 잠재력을 파악해 주셨어요. 그게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휘자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다. 한 번에 들어도 음악 선생님 같았다. 유년시절부터 합창을 배웠고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입학해 성악을 전공했다. 원광대 유아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교사의 길로 들어섰지만 음악 외길은 그 후에도 이어졌다. 재직하던 학교마다 어린이합창단, 중창단을 맡았기 때문이다.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마다 어린이합창단, 중창단을 지도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간여행과 함께하는 전국어린이동요콩쿠르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소방방재청장 표창장, 군산시 및 고흥군청 지도교사상,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일 20명의 단원으로 은과소년소녀합창단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은과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단원 부모들이 주도해 뜻을 모아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27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어린이, 희망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창단 공연을 갖고 공식 데뷔했다.

동백대교 개통 축하 군산-서천 청소년교류음악회, 작곡가 윤학준 위촉 은과청소년음악회, 군산야행 ‘동요를 창작하는 아이들’ 공연,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이 예정돼 있다.

합창의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음을 맞추고 끊임없이 반주에 맞춰 연습해야 한다. 기초가 탄탄해야 무대 위에서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다. 청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낯선 경험도 단원들이 극복해내도록 도와야 한다.

단원들은 매주 일요일 두 시간동안 연습을 갖는다. 발성 등 기본 역량부터 차곡차곡 익혀야 기 때문에 올라가야 할 계단이 많다.주말에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살짝 눌러야 한다.

이하경 지휘자는 “지도자의 과정은 힘들지만 합창을 통해 소리를 조절하며 하모니를 만들면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은 어린이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단원들이 무대의 연주 경험을 통해 행복과 자긍심을 갖는 모습에서 큰 힘을 얻지요.”라고 말했다.

군산 청소년들이 합창을 통해 세계 속에 문화 한류를 심고, 자신의 세계를 맘껏 펼쳐나가길 소망해 본다.





보리 향기를 찾아 떠나는 군산콩당보리축제

- 5월 3일~6일 국제마을 앞 들판에서
- 이야기가 있는 농업여행

글 | 허종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대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의 대명사인 이 말은 가난의 굴레가 얼마나 큰가를 아스라한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다.

소작을 부쳐 사는 농부들은 산밭이나 2모작 농때기에 심어 놓은 보리에 이삭도 피기도 전에 되주의 쌀이 떨어지기 일쑤였다.

누군들 배고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때 해 먹는 밥이 바로 ‘풀죽’이었으며, ‘숙버무리’, ‘무시밥’ 등이었다.

기억도 희미한 이런 음식들은 이제 건강식이 되어, 혹은 별미가 되어 우리네 밥상을 찾아 왔지만 ‘그 때 그 시절’엔 눈물 젖은 밥상이었다. 그런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주는 게 바로 군산의 콩당보리축제이다.

이 축제는 5월 3일부터 사흘동안 군산 산북동과 옥서면에 걸쳐 있는 국제마을(일명 아메리카타운) 앞 들판에서 열린다.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일명 미면 큰들에 펼쳐진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 어려울 때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추억을 쌓는 일이다.

물론 다채로운 어린이 프로그램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엄마랑 아빠랑 코너’에서는 물고기잡기, 전통농업체험, 잔치마당을 마련하여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고 가족들과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콩당런닝맨’은 5개 대장으로 구성되어 대장들의 지휘 하에 5개의 다양한 게임과 체험으로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림그리기, 글짓기를 통해서 보리밭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도시민들에게 보리를 재배해 볼 수 있는 ‘새싹보리로 한 뼉 텃밭가꾸기’ 행사도 준비했다.

보리관련 제품 전시 홍보, 보리 수제맥주 시음행사, 보리빵인 ‘보리진포’ 홍보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군산명품보리의 생산, 가공,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군산명품보리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군산의 서부권 간척지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보리 재배의 최적 조건을 제공해줬다. 군산 흰찰쌀보리는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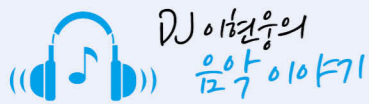
옥구읍에서 1994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배를 시작해 2008년 7월에 지리적 표시 제49호로 등록되면서 군산시가 전국 제일의 주산지로서 인정받게 됐다.

2000년 이후 흰찰쌀보리 재배가 급격히 늘었는데 가격하락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성지역 농업인 스스로가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군산콩당보리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리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용성 식이섬유가 일반 쌀의 7배, 밀의 3.7배나 높은 함량을 지니고 있어 변비예방, 비만예방, 피부미용 등에 좋아 웰빙 식품 중 최고의 대표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콩당보리축제를 통하여 군산의 보리가 얼마나 건강에 좋고 유익한지 전국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로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면서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쿼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퀸'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03. 슬픈 남자의 마지막 신청곡

음악 감상 카페에서 술 취한 손님의 흔한 거짓말 중 하나는 '마지막 신청곡'이다. 그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개 마지막 신청곡 이후에는 또 다른 마지막 신청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날, 그 남자도 그랬다. 카페 오픈 초기의 어느 겨울날,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이 공친 채로 카페 문을 닫으려던 순간에 들어선 남자는 메모지에 쓰지 않고 구두로 음악 신청을 했다.

"DJ님! 멜라니 샤프카의 '새디스트 씽' 됩니까?"

남자의 첫 번째 신청곡은 이별의 아픔이 담긴 노랫말과 슬픈 멜로디, 가수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진 노래였다. 흔히 세계 3대 슬픈 노래 중 한 곡으로 말하는 Melanie Safka(멜라니 샤프카)의 <The Saddest Thing>이라는 곡이었다.

"물론입니다."

내 대답은 유쾌했을 것이다. 커피 한 잔의 매출보다는 카페에 어울리는, 음악을 좋아할 것 같은 손님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으리라. 그런데 슬픈 보컬과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다른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의 울음소리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대체 어떤 곡절이 있기에 저리도 서글피 우는 것일까?'

그를 향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안고 나 또한 슬픔 음악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 독특한 상황이 깨진 것은 노래가 끝나갈 무렵 들려온 남자의 목청 높은 소리 때문이었다.

"DJ님! 한 번만 더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

평소, 같은 가수의 음악을 선곡하지 않는 어쭙잖은 고집을 30년 넘게 고수해온 나로서는 남자의 요청이 마뜩잖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청을 거절하기에는 그가 너무 슬퍼 보

였다. 아마도 삼십 수년의 방송 역사상 처음인 일이었을 것이다. 똑같은 음악을 연이어 선곡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녕을 고하는 일이라고 노래하는 멜라니의 허스키한 음색이 폐부를 찔러 오던 두 번째 곡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척거리며 걸어오더니 음악실의 턴테이블 쪽을 바라보며 소리치듯 말했다.

"근데요, 이 노래 지금 LP로 트는 겁니까?"

아차 싶었다. 그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평정심이 흔들렸는지 LP 레코드가 있었음에도 의도치 않게 디지털 음원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에이, DJ님! LP로 틀었어야지. 그 참, 프로의식이 없는 거 아냐?"

마치 아랫사람에게 훈계하듯 반말 투로 던지는 남자의 말에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다. 그를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처음으로 후회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LP 음반으로 같은 신청곡을 세 번씩이나 들려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제 이 곡이 끝나면 영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멘트를 하리라고 생각을 다졌는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남자가 또 음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카페 문 닫을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곡만 틀어달라며 떼를 썼다.

신청곡은 <아름다운 강산>이었다.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줄여볼 요량으로 이선희 버전을 추천했지만 그는 반드시 8분 짜리 신중현 버전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언행이 마뜩지 않았지만 도 닦는 심정으로 네 번째 신청곡을 틀었다. 그는 노래를 듣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흔들고 발장단을 맞추며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

한 곡만 듣고 가겠다던 애초의 말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그때쯤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긴 노래가 끝나자마자 영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멘트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음악실 쪽으로 걸어오

니 소리치듯 말했다.

"DJ 아저씨! 새디스트 씽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이번엔 아저씨란다. 나는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고백하지만 결코 아저씨라는 호칭 때문은 아니었다. 멘트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그에게 갔다. 가까스로 침착하게 영업이 끝나서 퇴근해야 함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떼를 썼다.

"DJ 형님, 부탁드립니다. 형님! 제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정말 슬픔니다.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형님이란다. 무슨 일 때문에 슬픈 것이냐고 묻고 싶지 않았다. 다만 거의 애원하는 표정과 몸짓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을 뿐이었다. 할 수 없이 또 같은 노래를 틀었다.

남자는 음악실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더니 네 번째 같은 곡을 들으며 또 흐느꼈다. 남자에게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저 더는 그와의 갈등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남자의 흐느낌과 나의 인내심이 어우러진 다섯 번째 신청곡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영업이 끝났다는 멘트를 신속하고도 간단하게 한 후 오디오의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다.

음악이 없는 카페는 적막강산의 과장된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남자였다.

"음악이 왜 안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힘주어 말했다. 그들의 말투에는 이미 친절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끝났어요? 신청곡 한 곡 남았는데……."

남자는 신청 메모지를 들어 흔들며 말했다. 결국 내가 나섰다.

"선생님! 한 곡은 여운으로 남겨 놓으시지요"

그때의 내 말투는 분명 딱딱했을 것이다. 남자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말인가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계산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직까지 술에서 깨지 못한 비척거리는 모습으로 지갑 속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넨 남자는 배웅 인사를 위해 계산대 옆에 서 있는 나를 향해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다.

“잔액 부족인데요?”

그의 인사에 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내 귓전을 파고드는 직원의 목소리였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로....”

그가 건넨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포스 화면에는 잔액 부족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직원은 직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둘 다 무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못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찢찢매면서 열린 음악실 안으로 피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원은 거의 울상이 되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장님... 제가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여전히 취기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네... 아니, 그냥 다음에 오실 때... 아니 그냥... 오늘은 제가 대접한 걸로.....”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내 호의를 단호하게 자르고는 여전히 허리까지 숙

여 질하듯 인사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 또한 여전히 어찌할 줄 모른 채 괜찮다는 말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맞절을 했다. 남자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고개를 숙이며 내일 꼭 갖다 주겠노라는 약속을 남긴 후에야 몸을 돌려 출입문을 향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음악이야기 카페의 첫 방문을 끝내고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으로 떠나갔다.

남자가 떠난 후,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기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우울함의 엄밀한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 손님, 목도리 놓고 가셨는데요?”

테이블을 정리하던 직원이 의자에 놓여있던 목도리를 집어 들며 말하기가 무섭게 나는 낱아채듯 목도리를 받아 들고 밖으로 부리나케 나갔다. 계단을 뛰어 1층 출입문을 닫고 나가 건물 앞 인도를 좌우로 살펴보았지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깊은 겨울 밤바람이 불어와 살을 에이는 듯한 맹렬한 추위를 느끼며 급한 발걸음을 옮겼다. 건너편 인도, 차도 쪽을 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후문으로 나갔나 싶어 건물 뒤편을 향해 뿔박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건물을 중심으로 블록 전체를 완전히 돌아보았지만 끝내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까스로 참으며 허탈한 마음으로 카페에 돌아오자 직원이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남자가 남기고 간 신청 메모지였다. 신청곡은 Neil Diamond(닐 다이아몬드)의 〈Solitary Man〉이었고 사연란에는 ‘인생, 이별, 죽음’이라는 글이 있었다.

나의 우울함은 더 짙어져 갔다. 손님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도, 유일하게 온 그 남자마저 돈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도 아닌 그 우울함은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꾸만 떠오르는 그 남자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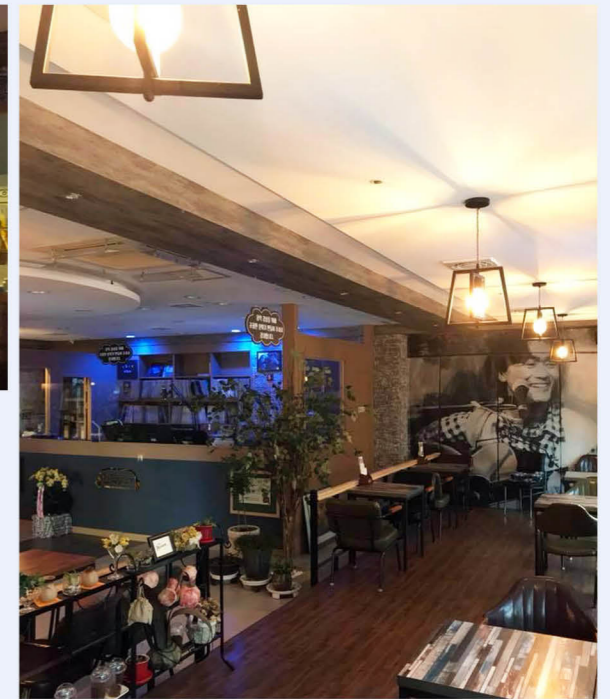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혹독한 추위에 어디에 있을까? 고단한 심신을 놓힐 수 있는 보금자리는 있을까? 목도리도 없이 이 차가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체 어떤 슬픔이 있는 것일까? 메모지에 적힌 이별은 누구와의 헤어짐이었을까? 왜 죽음이라는 글을 썼을까? 설마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그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뇌리를 점령했고 그것들은 폭군처럼 군림하는 불면의 지배 아래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그 남자에 대한 내 태도였다.

‘나는 왜 그리도 옹졸하였던가. 그에게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슬픔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같은 곡을 반복해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얼마나 언짢아했던가. 마지막 신청곡 한 곡 더 들려주는 게 그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몰인정하게 보내야 했을까.’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댈 수 있는 양지 바른 담벼락이 되어 주겠노라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한 날 장사꾼으로 영락(零落)해버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깊어가는 새벽만큼이나 서글픔도 깊어만 갔다.

다음 날, 남자는 오지 않았다. 그다음 날에도, 며칠 후에도, 몇



달 후에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남자는 오지 않고 있다.

그를 휘감고 있던 슬픔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나는 카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일기장에 그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자’라고 적어놓았다.

오늘도 나는 그를 기다린다. 자신이 방문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그 남자를. 그리하여 이번에는 단지 커피와 술을 파는 상인으로 서가 아니라, 삶이 고단하여 지친 그에게, 설움이 가득할지도 모를 그 남자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DJ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남자를 기다린다. 그가 마지막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나의 몰인정함으로 듣지 못했던 〈Solitary Man〉을 들으며 말이다.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얼마전 지역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 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업'중으로만 알고 있었던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찌된 일인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지난 2015년부터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위탁업체는 적자 운영으로 최근 운영을 중지했고 시는 위탁업체와 계약 해지, 그리고 추가로 시설을 보완한 후 새 위탁자를 모집하겠다고 한다. 오토캠핑장을 개장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절로 한숨만 터져 나온다.

2010년이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오토캠핑장 사업공모가 있어 군산시는 이를 유치하고자 내초도 공원 인근에 조성할 계획으로 공모를 했고, 사업선정이 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부지가 청암산이 있는 옥산 우동제로 변경됐다.

이 사업의 시의회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나로서는 내초공원에 비해 현저히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동제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내가 반대한 이유는 오식도 내초공원 인근에 조성하기로 한 오토캠핑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청암산 인근으로 부지가 변경됐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캠핑장의 경우 캠핑과 관광이 함께 어울려 저야 함에도 청암산 산자락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장 초기에는 이용률이 높을지언정 이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누가보아도 내초공원 인근 부지는 가까운 곳에 비응항과 새만금,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유람선 선착장도 있어 도서지역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옥산 우동제는 인근에 청암산 이라는 등산 및 산책로가 있다는 장점 이외는 별다른 휴식 시설이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적합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공모 1년여 만에 군산시는 청암산과 군산저수지, 구불길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옥산C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과 캠핑장 조성비가 가장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를 내세워 옥산 우동제로 변경해 결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군산시 인근에 위치한 '웅포 캠핑장'이 새로이 조성되고, 고군산 도서지역과 육로가 연결되면서 '무녀도 캠핑장'이 조성되는 등 도내 유명관광지 주변에 캠핑장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청암산 캠핑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

이번 위탁업체의 운영 중지에 따라 군산시는 추경예산에 시설 보강비 1억6천만 원을 반영하고 편의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을 확충해 더 많은 캠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추가 예산투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업추진 당시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 눈앞의 국비 확보와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식 행정에 얽매어 사업추진에 나서다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영동 상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2009년)' 19억 원, 나운동 '동백로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2011)' 5억 원, '개복동 예술의거리' 등의 사업들과 아직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공설시장 '청년몰'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사업의 성공은커녕 실

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업들이 즐비하다.

당시에는 의욕에 앞서 사업추진을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다 보니 결국 실패를 초래하고 막대한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사업추진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전보나 퇴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에 없고 새로 업무를 이어받은 후임 공무원들은 뒤처리하기에 바쁘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이를 인정하는 공무원을 보지 못했다.

행정은 투명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 또한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의 문이다.

최근 일부 시도에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나 용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획 확대,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군산시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기대해 본다.



전군산시의원 이복

정교분리 政教分離

목사가 임직할 때 하는 선서 중에 "결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얼마 전 분당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 중에 자신은 결코 설교석상에서 정치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정교분리의 원칙에 찬성한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많은 목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든 진보든 목사들이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를 교회 강단에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금지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꾸짖는 것은 정치참여가 아니고 당연히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선지자들의 우선된 임무가 왕의 잘못을 꾸짖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

다윗 임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을 전방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한 죄를 범했을 때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선지자 나단은 왕을 찾아가서 꾸짖었고 그의 꾸짖음을 들은 왕은 수많은 밤을 회개하며 눈물 지었다.

정치인들이 분명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지지하고 그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뺨개로 몰아대는 목사가 있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빌붙어 산다면 그는 이미 목사로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자격을 잃은 것이다.

하물며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정당에 들어가 활동하고 심지어 선거에 출마까지 한다면 그는 당연히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독교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도권정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오해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정치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목사의 직무유기이며, 현직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꾸짖어야 할 자리에서 먼저 부패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먼저가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짓밟는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비판 받아야 할 지도자가 있다면 설교석상에서 준엄하게 꾸짖어라.

그게 바른 목사의 길이다.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시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환경 운동가 남대진


레진치료가 보험적용??

올 해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영구치 우식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 충치 치료에 레진이 보험급여 해당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방법으로 충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유치는 해당이 안되고 영구치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유치 및 12세 초과 어린이의 충치치료는 기존의 방법대로 보험적용이 됩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보험적용 받던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12세 이하 어린이이며 영구치에 한해서, 레진치료가 보험적용 되는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충치치료 하는 방법에는 재료에 따라 지아이, 레진, 골드 인레이, 크라운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각 재료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충치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저는 레진을 가장 선호합니다. 충치가 너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진으로 충치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진으로 충치치료 한 경우에는 어디를 때웠는지 일반인은 구별하지 못 할 정도이고, 충치치료를 위해 치아를 많이 깎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이라면 술식(치료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정교한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치료비는 증가하겠고요. 이러한 레진이 보험 적용된 것은 '좋은 치료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가 되면 영구치가 올라옵니다. 그 중에 제1대구치(첫 번째로 맹출하는 큰 어금니)는 저작 기능면에서 가장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코팅을 해줍니다. 코팅을 하는 재료에도 2 가지가 있습니다. 실런트와 레진입니다. 실런트는 오래 전부터 보험적용이 되던 것어서, 실런트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충치라도 발생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전체의 치아우식증(충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경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 환자 부담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평균 10만원 -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기존에 비해 약 75% 경감	75% 경감
--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되면 실런트를 할 수가 없는데, 레진은 충치를 때우면서 코팅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기에 초기 충치가 있는 어금니에서 레진을 사용해서 충치치료와 레진 코팅을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의 레진 치료도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치과 레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확인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치과 검진 가보시길 바랍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 할 때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갓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개정됐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와 기타부동산 보유자, 임대사업자 등 세 분류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2018년까지의 기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한 지 3년이 넘는 시점부터 24%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년이 넘을 때마다 8%씩 증가하며, 10년이 넘을 경우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다주택자와 기타 부동산소유자의 경우 최저 공제율은 3년 이상인 시점에 10%였고, 보유기간 10년까지 최대 30%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구간별 요율에 따라 세분화되었을 뿐아니라 공제율도 줄어들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엔 차이가 없지만, 다주택자와 기타 부동산의 경우 최저선이 6%로 낮춰지고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최대 공제율인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2018년 까지) 다주택자, 토지건물, 입주권	(2019년 부터) 다주택자, 토지건물, 입주권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3년 이상	24%	10%	6%	없음
4년 이상	32%	12%	8%	
5년 이상	40%	15%	10%	
6년 이상	48%	18%	12%	
7년 이상	56%	21%	14%	
8년 이상	64%	24%	16%	
9년 이상	72%	27%	18%	
10년 이상	80%	30%	20%	
11년 이상			22%	
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			30%	

수도권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하였다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상쇄하고, 양도소득자체가 장기간에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어 한꺼번에 고율의 세율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공제율은 그대로 놔두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늘림으로서 10년이상 장기보유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차질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도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팀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가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다보면 등기 부상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부동산을 볼 수 있어 이해당사자간에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A의 기존 채권자들이 이 매매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A, B 간의 매매를 취소하고 B 명의로 넘어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B 명의 아파트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A는 다시 이를 C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A의 원래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재산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 처럼 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채권자들은 이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이전등기를 말소시켜서 다시 아파트의 등기가 채무자 앞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 채권자들은 채무자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

여 낙찰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원래의 채권자들과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를 처분할 권리도 없으며 처분하여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채무자 A 자신이 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관리자가 된 것이 아니어서 A에게는 이 부동산을 처분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A가 자신에게 돌아온 아파트 등기명의를 다시 C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권리자에 의한 매도 및 등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A의 원래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무효의 등기인 C 명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한 C

의 이익보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A의 기존 채권자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대중공업의 철수와 GM의 공장 폐쇄로 절망스러웠던 악몽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우리 군산에 어쩌면 흑안이 지나가고 새 봄날이 오려는가 봅니다. 아직은 그 어떤 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GM공장에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MOU 체결, 조선업의 부활 기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움츠렸던 군산의 경기가 다시금 큰 기지개를 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희망의 달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해 5월 폐쇄한 지 10개월만에 전격적으로 매각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주축 된 컨소시엄과 한국지엠이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목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컨소시엄은 완성차 브랜드 위탁을 통해 전기차 생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본격적으로 군산공장이 매각되면 이를 통해 '전북형 일자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전라북도는 실무·현장 전문가로 상생형 일자리TF를 구성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나선 상태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중국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업계에선 군산공장이 전기차 조립 및 생산 공장으로 바뀔 경우 5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기회에 GM 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와 함께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전북의

어려운 고용 위기상황 극복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뉴스투데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1997년 대우자동차로 출발하여 연간 26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최고의 품질과 복합 자동차 산업단지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및 화성 공장 등 주요 5개 단위 공장 및 시트, 서스펜션 및 공조기 조립 등 3개 부품 조립 단위 공장, 주행 시험장과 출고장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었다. 지난 2011년 26만 8700대를 생산하며 군산의 자랑스러운 수출의 역군 이었고,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 경기 침체와 전 세계자동차 산업의 한계 등 난제에 봉착하며 생산물량을 급격하게 조정하여 공장 명맥만이어오다 결국 폐쇄가 된 것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경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본사와 부품 협력사 등의 근로자들은 무려 1만 3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한국GM 군산공장이 다시 가동되면, 전라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컨소시엄기업들과 노동계가 협력하여 상생형일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한다. 예전처럼 대규모 생산라인은 아니더라도 자동차 생산을 통한 직,간접 고용과 고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은 지역경기와 군산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군산시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상생형 일자리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 긍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여 모범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벚꽃이 아름다운 군산
군산의 봄
희망의 봄이 되기를 바란다.

글 | 온승조(컬리니스트)
군산상공회의소
gsforum@hanmail.net

근대역사박물관

시민 바자회 공모 실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민 바자회 참여단체 공개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박물관 벨트화 지역에서 시민 바자회를 주관하여 운영할 단체를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바자회 모집공고는 4월 3일부터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으로 신청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로, 사행성 물품 및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제외 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단체 활동내역서, 바자회 운영 계획서이며,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 사무실(063-454-7874)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장미공연장 인근 차 없는 거리에서 바자회를 주관하여 운영하고, 바자회 장소 주변에서는 거리 문화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볼거리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박물관이 되고자 바자회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바자회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물관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며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9 군산시민예술촌 '버스커즈 in 군산' 시즌7 왕중왕전

군산시민예술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군산시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거리사업인 '버스커즈 in 군산' 시즌7 왕중왕전을 오는 4월 6일 오후 4시부터 은파호수공원(물빛다리광장)에서 화려한 막을 연다.

이번 '버스커즈 in 군산' 시즌7은 시즌1부터 시즌6까지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팀들이 참여하여 왕중왕을 차지하기 위한 열띤 공연을 펼치게 되며, 프리마켓과 군산시민예술촌 전시관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군산의 자랑인 은파호수공원(물빛다리광장)에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번 대회는 시민들과 관광객에도 문화예술도시 군산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시민예술촌장 박양기는 "군산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의 '버스커즈 in 군산' 시즌7 왕중왕전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최고의 버스커즈들이 군산을 알리는 문화 매개체가 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 군산시민예술촌 문화도시고리사업 '문화살롱'

군산시민예술촌의 방향성 및 문화콘텐츠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고리사업 '문화살롱'은 군산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개발하기 위하여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가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문화예술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공동체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진행된다.

군산시민예술촌은 '문화살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꾀하며 또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사회가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

달그락 청소년 미디어 아카데미 열려

2019년 3월16일 토요일에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1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환호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달그락 청소년들은 매년 초 신입 청소년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다. 이번에는 신입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달그락활동을 체험하고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오픈달그락데이'라 정했고 11개의 자치기구들이 힘을 합쳐 자치기구 체험 부스와 토크콘서트를 준비했다.



“우리 모두 다치지 말고 즐겁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픈달그락데이 행사 시작 1시간 전 각 자치기구 대표 청소년들이 모여 최종 점검을 마치고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시작한 오픈달그락데이. 초봄이라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청소년들이 줄을 서서 오픈달그락데이를 접수했다. 1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부스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 달그락달그락 공간 뿐만 아니라 1층 해피빈스 카페 공간도 대여하여 활동이 진행되었다. 핸드드립 커피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지난 활동 사진과 영상을 보며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청소년, 유쾌한 영상 미디어 체험으로 까르르 웃는 청소년, 작가 체험을 하며 평소에 쓰고 싶던 글을 쓰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청소년. 체험을 받는 청소년들 그리고 부스를 운영하는 청소년들 모두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활기 넘치는 달그락 부스 체험을 마치고 모든 청소년들이 달그락 공간에 모여 앉았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소통할 권예은(16)·윤나연(16)·김소현(19) 청소년 3명이 참여청소년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윤나연 청소년은 “보물섬이라 하면 금은보화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소중한 것들과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달그락은 저에게 보물섬이라는 공간이에요.” 김소현 청소년은 “자치기구는 모든 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하

고 스스로 해내고 그 과정 중에서 제 삶을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질문이 이어졌다. “자신감 있게 활동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3명의 청소년들의 대답은 같았다. “이 활동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내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요.”

이번 오픈달그락데이 행사를 포함해서 2019년도에는 200명 이상 청소년들이 달그락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회가 더 긍정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2019년, 군산의 2019년을 기대해본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독자들에게 드리는 안내의 말씀

‘매거진군산’이 2019년 7월호(지령100호)부터
 유료화 함에 따라 구독 요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바른 소리를 내려면 독자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1.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 1개월 구독료 10,000원(자동이체 및 연납기준 1년 10만원)
 - 월간 '매거진군산' : 매월 15일경 발행 / 주간 '새군산신문' : 매주 목요일 발행
2. 매거진군산 혹은 새군산신문 중 한 가지만 구독할 경우 = 1개월 7,000원(자동이체 및 연납기준 1년 7만원)
3. 매거진군산 구독자들에게 별도의 배송료는 받지 않으며, 새군산신문 기존 유료 구독자는 변동 없습니다.

※ 구독료 입금계좌

매거진군산 : 농협 302-9676-8134-21 채명룡(매거진군산)

새군산신문 : 농협 301-0233-9489-21 / 전북은행 1013-01-2211518 새군산신문(주)

※ 문의

063) 445-4700 : 독자관리 담당

※ 년 구독료 입금시 군산특산품 [군산화투]를 드립니다.

■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에 전직원 나서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전직원 교육

군산시가 지난 21일 '2020년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및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30%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재원으로, 시는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을 진행한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과 "정부 부처의 감사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집행,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교부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직원의 관심과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규지표를 발굴하고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국가예산확보 전략 교육에서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이 "국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체계, 목적예비비, 생활밀착형SOC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전직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33.2%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인 3,69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한바 있다.

■ 초발 정신질환자 사회재활 프로그램 '청춘챌린지'

군산시가 조현병 환자의 만성화 예방을 위해 초발 정신질환자 사회재활 프로그램 '청춘챌린지'의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청춘챌린지'대상자는 20세 이상 시민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재활 프로그램은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 1회씩 진행되며 ▲그룹인 지행동치료 ▲지역사회 적응훈련 ▲작품만들기(목공) 등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자지원팀(☎451-0363)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조현병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사회적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군산해수청, 청소년 해양의 꿈 심다

도내 1천여명 대상, 해양레저스포츠체험 해양교육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4월부터 10월까지 해양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형과 체험형 두 가지 유형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형 프로그램은 관내 선유도 및 말도등대의 유래와 역사를 찾아보고 등대지기를 체험할 수 있는 '등대는 내 친구'(60명, 2회),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선박 재난 상황 대처, 응급처치, 심폐 소생술 등을 교육하는 '해양안전 스쿨'(300명, 10회)이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해양·항만의 직업체감과 군산항 부두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해양사랑, 항만사랑'(300명, 1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비응항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직접 바나나보트, 카약, 레프팅, 스피드보트 등을 무료로 즐겨보는 '해양 레포츠야 놀자'(500명, 10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전북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협회·단체는 군산해양수산청 홈페이지(gunsan.mof.go.kr)를 참고하여 희망일 1개월 전에 신청(063-441-2262)하면 된다. 박정인 청장은 "이번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바다에 대한 견문을 넓혀 올바른 해양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유관기관·기업 사업 추진 협약



군산시가 지난 20일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2,530억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약 95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약 1,5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 유관기관 및 기업이 함께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530억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안전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의 브랜드화 및 상품화에 집중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곽병선 군산대학교총장, 최재용 전북농림수산식품국장, 유관기관 및 수산가공기업인·어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새만금지구는 서해중부 황금어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풍부한 배후

시장과 광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수출가공 클러스터에는 수산식품 산학연구센터, 수출기업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약50여개의 민간 수산식품 기업이 입주해 마른김, 조미김, 김스낵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약1,000여명 직·간접 고용창출과 2차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통해 약3,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긴급 점검

이동오염원 줄이기 54억 투입

군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의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4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승복 부시장, 국소장 및 협업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임준 시장은 긴급 상황보고를 받고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와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임을 인지하고 추경에 17억원을 확보하여 1,100대를 추가 폐차지원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117대를 보급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화물차 피엠옥스(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이외에 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측정소 2개소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에게 측정소 자료를 시에서 운영 중인 홍보전광판에 실시간 표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설치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 환경기술을 지원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비산 저감 조치에는 관급·민간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 등을 적극 조치하게 하고 이행실태 등도 강력히 점검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1억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읍면동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라 밝히며, 지난해에는 경로당 507개소에 9억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바 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금강공원 해안도로변 등 11개소에 10억원을 투입, 도시공원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산림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군산시 보건소, 부모코칭 프로그램 'Happy Mom'

군산시 보건소가 부모코칭 프로그램 'Happy Mom'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Happy Mom'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사업의 일환으로,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양육을 위한 엄마성장'을 주제로 ▲나와 가족에 대한 이해 ▲엄마의 자존감 ▲의사소통 기술 ▲힐링타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4월 3일 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격주 목요일 총 7회기로 진행된다. 참여희망자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ksmhc.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451-0361)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시 문화사절단과 함께 글로벌 군산 스타트

제4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발대식

국제교류에 유동적 대응으로 글로벌 군산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63명으로 이루어진 제 4기 외국어 통역봉사단이 발족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역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역봉사단은 2년 동안 군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축제·국제 행사를 비롯해 기관·단체와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의 격려에 이어 정희상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대사는 '4차산업시대에 요구되는 통역의 역할'강의로 통역봉사자역할을 강조했다. 시는 민관의 국제교류시 유동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서포터즈'구상으로 문화사절단인 통역봉사자와 함께 동반성장을 시킬 계획이다. 현재까지 군산시는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봉사자 275명이 총 145회 외국어 통역을 지원해 왔다.



2019 **04**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 23일까지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춤추는 신데렐라 군산 예술의전당	클래식토리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합창단 제98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The Music의 봄의 향연, 블라썸 콘서트 피아니스트 최승리와 함께하는 봄의 향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족뽀로로쇼 '월드 스타 뽀로로' - 전주 파스토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1	02	03	04	05	06	
가족뽀로로쇼 '월드 스타 뽀로로' - 전주 아마하&클나무필하 모닉오케스트라 페스 티발 조인목 플루트 귀국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35회 전북연극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35회 전북연극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교향악단 제133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제35회 전북연극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영은 콘서트 (만원의 행복) 신호등 위에 티 잡은 새 군산 예술의전당	
08	09	10	11	12		
한국최초 50개도시 순회 독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제66회 전주대학교 춘계정기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중실 선생님 추모 음악회 트레블 클라리넷 앙상블 제4회 정기연 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무용극 - 모악정서 군산 예술의전당	
15	16	17	18	19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오즈의 마법사 제13회 군산시 노사 가요제 군산 예술의전당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9 하니비필하모닉 제 27회 정기연주회 2019 JB카드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2	23	24	25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9 고려인-高麗人- 익산국악관현악단 창단10주년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호랑이 가(歌) 군산 예술의전당	하우스 콘서트 군산 예술의전당	오즈의 마법사 제13회 군산시 노사 가요제 군산 예술의전당	2019 장범준 전국 공연 콘서트 '노래방 에서' - 전주 아트스테이지소리 ep67: 참깨와솜사탕 2019 임창정 콘서트 'IMCHANGJUNG'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8	29	30				
	양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목관 앙상블 포레 창단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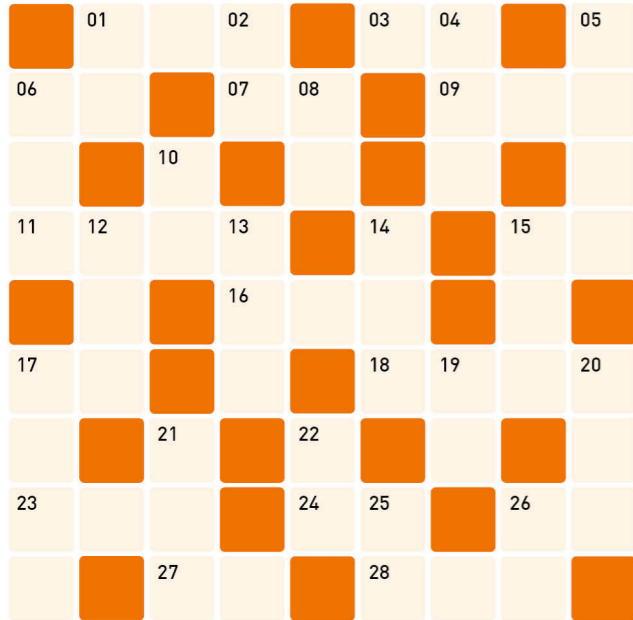
- 군산예술의전당**
- 2019 별별동행 2019-03-20 ~ 2019-04-10
 - 제2회 야생포토 생태사진 2019-04-06 ~ 2019-04-10
 - 2019년 제5회 봄 정기전시회 2019-04-24 ~ 2019-04-28
 - 드림전시회 2019-04-26 ~ 2019-04-28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 04.04(목)~04.21(일) [기획] 원로작가 공간기획展
 - 04.25(목)~04.30(화) 제51회 강암연목회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흥동 7
(063) 445-5947 |
|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93



<제92호 퍼즐 정답>

스	나	미	점	입	가	경
예	이	무	진	장	칩	
타	블	로	이드	요	람	
면	비	판	불	금		
제	비	사	간	원	토	성
	동	판	천	수	탄	
화	백	마	리	오	네	트
매	대	항	마	지	리	
연	두	교	서	배	심	원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이나 음반.
- 03 칼로 음식을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것.
- 06 증서, 원서, 신고서 따위와 같은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방식.
- 07 똑바로 드리움, 또는 그 상태. ↔수평.
- 09 '옛사랑' '광화문 연가'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남자 발라드 가수.
- 11 사물의 요런 면 조런 면.
- 15 낫구멍 속에 낀 때.
- 16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7 종이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
- 18 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헤어짐.
- 23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귀고리, 반지, 목걸이, 팔찌 따위의 물건.
- 24 대의 땅속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린 싹.
- 26 괴로움과 즐거움.
- 27 한글자모 'ㄴ'의 이름.
- 28 철길마을로 유명해진 군산의 동네 이름.

▶ 세로 열쇠

- 01 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를 지내고 사초(莎草)를 하는 등 묘를 돌아보는 날. 올해는 4월6일.
- 02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
- 04 진안에 있는 말의 귀 형상의 산.
- 05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
- 06 신라의 선화 공주를 사모하여 백제의 서동이 지었다는 향가.
- 08 견우와 ○○.
- 10 조선의 제22대 왕.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 12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13 다른 물건을 분떠서 만든 물건.
- 14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 주시경 등이 1910년 무렵 편찬했으나 출판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최근 영화로도 상영되었다.
- 15 큰 통나무를 췌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 엮고 그 틈을 흙으로 매워 지은 집.
- 17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 19 두 가지 이상의 악기로 동시에 연주함.
- 20 산의 기슭진 부분.
- 21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
- 22 동의하였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편전을 부러 어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걸다.
- 25 경찰공무원 계급의 하나. 경장의 아래이다.
- 26 신호를 위하여 비교적 길게 내는 기적 따위의 소리.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상상을 향해!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 (주)제법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